



Unexpected artistic experience in the streets
SEOUL STREET ARTS FESTIVAL

www.ssaf.or.kr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SEOUL STREET ARTS FESTIVAL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거리예술 비평모음집
2018



SEOUL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STREET

서울거리
예술축제

FESTIVAL

거리예술 비평모음집

2018

CONTENTS

04

거리예술 비평 Opening Message

06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거리예술 비평모음

- 01 문화다양성의 깃발을 높이 들다 -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_ 이은경
- 02 축제의 진화, 거기 공동의 기억이 있다 - 〈따로, 또 같이〉 개막작을 중심으로 _ 김숙현
- 03 예술이 만드는 도시의 틈, 그 리듬을 타고 놀다 -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_ 이경미
- 04 현대무용 단체들의 약진 _ 강일중
- 05 〈종이비행기〉, 탈영토화의 세계 속으로 _ 서명수
- 06 단단한 캐릭터, 흥미로운 드라마 - 〈외봉인생〉, 〈물질 2 물질하다가〉 _ 김소연
- 07 관객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고민하다 - 〈물질 2 물질하다가〉 _ 엄현희
- 08 흔들리는 청춘, 붙잡는 예술 - 극단 몸골 〈충동〉 @청계광장 _ 정진세
- 09 오래된 축제와 함께 나이 들 권리 _ 채민

62

또 다른 시선 01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전문가의 시선

- 01 소재의 가공으로 바라본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국내 거리극들 _ 임수택
- 02 Reflections on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_ Maggie Clarke
- 03 Looking back at Seoul _ Stéphane Segreto-Aguilar

94

또 다른 시선 02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예술가의 시선

- 01 〈Vous avez un nouveau message〉 - KXKM Experience in Seoul _ Pierre Duforeau 외
- 02 〈고기, 돼지〉 축제 참여 공연 후기 _ 한윤미
- 03 〈Back of the Bus〉 Review _ Sacha Copland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8

거리예술 비평 Opening Message



서울거리예술축제는 관객과 거리예술의 다양한 시각의 접점을 제시하고자 거리예술 비평 모음집을 발간합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거리예술 비평모음집은 2016년 첫 발간에 이어 축제와 한국의 거리예술 작품 현황을 기록하는 매체이며, 앞으로도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총 아홉 명의 전문 평론가 및 공연칼럼니스트, 작가와 기획자가 축제를 방문하여 공연관람 후 소중한 비평문을 써주셨고, 총 세 명의 국내외의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 전문가가 색다른 시선의 축제리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에 참여하여 공연해주신 예술가 중 세 명이 이번 축제에 참여하여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적은 제작노트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거리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통하여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객의 거리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통하여 거리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거리예술 비평모음집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에 참여한 공연단체와, 전문가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배포됩니다. 축제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ssaf.or.kr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거리예술 비평모음

01

문화다양성의 깃발을 높이 들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이은경

문학박사 / 연극평론가 / 월간 『한국연극』 편집부주간 /
한국드라마학회 편집위원장 /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 /
명지전문대학 · 중앙대 대학원 출강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이 지난 10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남산골한옥마을 등 서울 중심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 스페인 · 폴란드 · 영국 · 벨기에 등 10개국에서 온 예술단체가 총 46편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 기간 동안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공연이 취소되고, 장소가 변경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축제를 온전하게 즐기지 못해 참으로 아쉬웠다. 최근 몇 년간 광장에서의 시위, 자연변화 등 외부의 영향으로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방해도 없는 축제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휴먼 넷〉라 푸라 델 바우스

©SSAF2018

축제의 방향성이 드러나다

올해 축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의 의미가 적극 반영되었다. 올해의 주제 '따로, 또 같이'가 함의하는 개념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김종석 예술감독의 "축제 콘셉트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의 모습을 상징한다. 각자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축제 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연대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각자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사회적 갈등이 다양화·심화되고 있는 요즘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필자이기에 이번 축제의 주제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되는 사회,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

가는 사회를 지향한다. 요즘처럼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혐오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문화다양성이다. 일상 속에 관습화되어 있는 편견과 차별, 배제 등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꾸고, 오히려 차이를 즐겨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아동·여성·다문화·성소수자 등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지역문화·독립예술·다원예술 등의 비주류문화에도 주목하여 소수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자 한다. 다수자가 주도하는 문화 획일성으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위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¹⁾이다.

개막작 〈따로, 또 같이〉는 제작방식뿐만 아니라 시각적 연출에서도 조화로운 공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스페인 단체의 〈휴먼 넷〉(라 푸라 델 바우스), 국내 단체의 〈빛의 기억〉(창작중심 단디), 2일간 약 330여 명의 자원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휴먼 라이트〉 3작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형 공연이었다. 이질적인 개별 작품을 결합하고, 자상과 공중의 퍼포머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스펙터클을 보여준다. 외에도 사회적 타자의 욕망을 담아낸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공플렉스 카파르나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소개), 공중예

1)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면서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중요한 화두이자 지향점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중심화되기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면서 3대 방향 중 하나로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을 제시했고, 8대 의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빛의 기억〉창작중심 단디

©SSAF2018

서 그물처럼 손과 발로 연결된 퍼포머들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휴먼 넷〉 등의 작품이 있다.

둘째, 관객 중심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이 친절한 홍보였다. 리플렛에 공연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이동형 공연의 동선을 밝혀서 공연장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절약할 수 있었다. 서울광장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공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을 관객들에게 제공해 공연의 접근성을 높였다. 개별 공연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단체와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서 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관객참여의 축제성을 강조한 것이다. 축제 마지막 날 왕복 11차 세종대로를 축제의 광장으로 개방하여 시민을 위한 거대 공연장이자 놀이터를 만들었다. 차가 다니지 않아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세종대로 곳곳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아스팔트에 분필과 테이프로 그림 그리기, 대형 종이상자로 하는 도미노 놀이, 참여자들의 말로 채워진 것 발전 등 관객 참여형 놀이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셋째, 발견공간²⁾의 확대를 통해 메트로폴리스 서울에 극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거리예술에서 '거리'는 단순 야외의 거리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거리예술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관객을 예술의 창조자로 수용하며, 관객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극적 공간으로 변한다. 배우와 관객을 포함한 모든 공연의 요소들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으로 완성된다. 그렇기에 거리예술의 매력 중 하나는 발견공간을 통해 일상공간에 극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축제는 발견공간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촌, 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을 거쳐 올해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남산골한옥마을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미 이 공간들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함이 약하다. 공연의 편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도심공간 속에서 극적 이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 특정 연극'이 많아질 필요가 있겠다.

2) '발견공간(found space)'은 환경연극에서 주로 논의되는데, 거리·시장·산·바다·뜰판 등 모든 삶의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쉽게 관객과 만날 수 있고, 관습적인 연극의 문법에서도 자유롭기에 극적 공간이 되기 용이하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빛째, 새로운 실험이 눈에 띄었다. 먼저 서커스나 아크로바틱 댄스처럼 신체의 기예에 중점을 둔 공연이 많아졌다.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트램펄린을 오브제로 한 〈피아쥬〉(쉬르 뮤지르)와 〈시지푸스처럼〉(예술집단 시파 프로젝트), 〈나의 서커스〉(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등은 서커스를 전면으로 내세운 공연이다. 〈블록〉(노핏 스테이트 & 모션하우스), 〈엔소(圓)〉(알렉산드르 레인 & 오리온 인드라 클리어스비), 〈내일의 종말〉(지르쿠스 모르사) 등은 아크로바틱 댄스이다. 아마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내에 서커스전문가 양성과정도 개설되어 서커스 창작과 소개가 적극 이루어지면서 생긴 변화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리고 이 공연들은 단순히 신체적 기예만을 보여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예술성과 소통성을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질적 장르의 융합이 적극 시도되었다. 이미 장르의 융복합은 동시대 공연예술의 중심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유사 장르 간의 결합은 이미 익숙하다. 하지만 쉽게 연상되지 않았던 장르 간 결합을 시도하는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었다. 서커스와 클래식음악이 만난 〈피아쥬〉, 음식과 퍼포먼스가 결합한 〈고기, 돼지〉(바람컴퍼니), 미술과 퍼포먼스가 만난 〈크로키키브라더스〉(크로키키브라더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소규모 관객과 만나는 작은 공연이 많아졌다. 거리예술이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창작되던 것에서 벗어나 1명이나 소수의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작은 공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주 작은 극장〉(독립공연예술가네트워크

크)은 제목 그대로 1명의 관객만을 위한 5분 정도의 짧은 공연이고, 〈버스에서〉(자바 댄스 씨어터), 〈종이 비행기〉(콜렉티브라 메앙드르), 〈고기, 돼지〉는 사전 예약한 관객만으로 제한해 공연되었다. 이는 관객과의 소통방식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수의 목소리를 광장으로 소환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작품은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의 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담아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영상 기반 단체인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이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서울에 대한 사전 조사와 시민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달 간 사전제작을 진행하여 완성한 다큐멘터리극이다. 공연장인 서울광장 입구에는 수많은 풍선들이 모여서 대형구(球)를 이룬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미 시각적으로 '따로, 또 같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통해 이 공연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예상할 수 있었다.

서울도서관 정문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에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한 영상 및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고, 인터랙티브로 문자이미지가 투사된다.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인터뷰어는 매우 다양하다.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 금속노조 노동자, 제주에 입국한 난민, 대학생 등



〈시간의 향기〉 극단KTO

사회적 소수자들의 육성을 들려준다.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민주적 공간이다. 다수 집단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소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 작품은 광장이란 공간성에 의해 더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된다. 대형 깃발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또 같이' 광장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스크린을 만들고, 그 위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인터뷰 장면을 다시 보여준다. 영상과 퍼포먼스의 결합으로 광장을 떠나지 않는 한 관객들은 귀 기울이지 못했던 사회적 타자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예술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도 장면연출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뷰이의 얼굴이 점차 다른 인터뷰이의 얼굴로 변하고, 영상 속의 나뭇잎과 실제 나무가 연결되며, 물에 물감이 섞여서 어우러지는 등 영상장면과 장면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면서 예술과 삶의 유기적 관계를 환기시킨다. 삶이 예술에 반영되고, 예술이 삶에 변화를 주는 선순환의 관계성을 환기시킨다. 동시대 예술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작품은 문화다양성이란 주제 의식으로 답한 것이다. 이 작품 외에도 흥미로운 공연이 많았다. 〈피아쥬〉는 수영장을 배경으로 유쾌한 장난을 보여주는 유머러스한 공연이다. 트램펄린을 활용한 압도적인 서커스, 클래식연주와 노래가 잘 어우러져 잠시도 시선을 돌리기 어려웠다. 〈물질 2 물질하다〉(코끼리들이 웃는다)는 턱 밑까지 물이 가득 찬 사각형의 수조 속에 배우와 관객이 함께 들어가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만으로 삶의 고단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크니스 폼바〉(모던테이블)는 어둠 속에서 등장한 남성 폼바들이 각을 맞춰 추는 역동적인 현대 무용과 록밴드(기타·베이스·드럼)의 라이브 연주, 판소리·구음이 어우러진 무용공연이었다.

개인적으로 2006년에 과천한마당축제에서 관극했던 〈시간의 향기〉(극단 KTO)를 이번에 꼭 보려고 했다.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12년이란 긴 시간이 나에게 어떤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과 인연이 없는 지 '2018ACC광주프린지인테네셔널'에서는 단체의 공연화물이 지연 도착하는 바람에,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공연취소 때문에 안타깝게 볼 수 없었다. 새로운 작품뿐만 아니라 예전에 감동적으로 보았던 거리예술의 명작들도 다시 만나고 싶다.

관습을 거부하는 거리예술은 태생적으로 소수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해야 할 예술적 소명이 있다. 축제가 문화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02

축제의 진화, 거기 공동의 기억이 있다 〈따로, 또 같이〉 개막작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잔혹한
사건사고가 매일매일을
갱신하는 요즈음
열린 공간에서 이완된 몸으로
불특정 타인과 함께
축제를 즐긴다는 것,
어딘가 불편하다.

매번 열리는 여러 축제의 면면들이 지역 시민으로서의 당신 삶이나 정체성과 연관되어,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의미 있고 그런 만큼 익숙하며 편안한가라고 묻는다면 그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일제에서부터 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그간의 역사만을 봐도 공동체의 의도적 단절과 관제축제로서만 존립해왔기에, 축제는 늘 그렇듯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었다. '즐거라!' 축제의 정언명령에 몸이 알아서 한 발 주춤 뒤로 물러서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격동의 사회정치적 이슈들 속에서 몸의 연대로 광장의 리듬을 성취해냈던 경험이 있기에,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동삼아 '함께' 축제를 만든다는 것이 어쩌면 먼 얘기만은 아닐 것도 같다.

거리예술축제로 호명된 이후 여섯 번째 맞이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상당수 눈에 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정보를 챙겨가면서 관람하는 모습이다. 과거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시민들에게 안착되지 않은 이유를 불충분한 홍보라고 여겼다면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는 얘기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명실상부한 축제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는 축제의 향유 방식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관람에 멈춰 서있다는 반성일 터인데, 이는 시민들의 능동성을 탐색하면서 전략적으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포착된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국제도시의 규모에 맞게 축제가 의도되고, 동시에 시민들 그들 자신의 축제로서 진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모순이 된다. 국제적 규모의 축제로서 스펙터클을 담보할 공연에 대한 갈구와 부담감은, 역으로 시민 주체로부터 발현되는 축제의 내용물과는 소원해지도록 한다. 도시민들 그들 스스로의 욕구와 요구를 축제를 통해 실현하는 것은 현재의 거버넌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 그대로가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진행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³⁾

김숙현

연극평론가

3) 올 축제도 지난해와 비슷한 구성이다.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영국, 벨기에 등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10개국에서 초청된 46개의 거리예술 공연을 주축으로 한다. 다만 186회에 걸쳐 공연하는 것으로 회차를 늘려 좀 더 촘촘하게 배치했다. 그런데 국제적 규모를 갖추고자 함에 있어 아시아권 국가의 공연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제의 스케일은 과연 유럽 국가의 공연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가.

축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일상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는” 축제이고자 한다. 2018년 축제의 모토, “따로, 또 같이”가 강변하고 있듯이 국내외 “시민 예술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공연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과업으로 내세운다.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시민예술공작단(citizen artists)의 활동을 올해에도 지속, 확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리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있는 ‘시민예술공작단’은 “직접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며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에, 개막 한 달 전인 9월 초부터 시민예술공작단을 모집하였고 개막 전 사전워크숍을 열어 전문예술가들의 작품을 함께 연습한 후 공연에 돌입하도록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주최 측이 내놓은 대표적인 공연은 총 3편이다. 개막작에 포함된, 스페인 라 푸라 델 바우스(La Fura dels Baus)의 〈휴먼 넷〉과 폴란드 극단 KTO(Teatr KTO)의 〈시간의 향기〉, 그리고 프랑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KompleX Kapharnaüm)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이다. 지난 해 보다 시민 참여가 좀 더 과감하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개막작에서이다. 개막작이 지닌 위상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예술가의 참여로 축제의 문을 열고자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의 ‘참여’가, 이미 존재하는 작품의 구조와 내용에 ‘참가’하는 것이지 자신의 실존에서 출발한 창조적 참여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할 것으로 보이는 〈휴먼 넷〉의 공중 퍼포먼스가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좀 더 가깝게 느껴졌으며, 어마어마한 군중 앞에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공중 넷에 있던 시민들 역시 일상의 삶에서 결코 해보지 못했을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그렇게 ‘평범한’ 비전문가가 전문의 영역을 훔치며 서울 광장의 공중에 함께 존재함으로써 동시대적 미학을 쟁취해냈다.

시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미약했던 작품이 〈시간의 향기〉가 아닌가 한다. 케이지 이동이나 ‘새’ 무리의 역할로 한정되었는데, 최종적 결과물인 공연에 투여된 참가자로서만 머물러 있었기에 시민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은 낮았다. 이미 만들어진 플롯과 인물들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공연예술을 경험하고 공유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누군가에



〈휴먼 넷〉 라 푸라 델 바우스

게는 동일하게 소중한 체험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시간의 향기〉는 작가의 어린 시절, 1920-30년대 폴란드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마치 동화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내면서도 잔혹한 폭력이 깃든 기억의 편린들로 무늬를 내는 작품이다. 아이의 등장으로 예견됐던 동화의 ‘순수’한 면모는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작품은 거대한 것과 작은 것 간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모든 제도, 즉 가족과 부모, 종교, 학교, 군대가 주는 위압감과 폭력성 그 이면의 희극성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었다. 서정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한편으로는 성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속된 삶의 대조가 대사 없이도 관객의 상상력을 유발하여, 바로 그 지점에서 폴란드라는 나라의 이국성을 동아시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으로 길어 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거리에서의 공연임에도 시종 관객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는 감성과 그로부터의 미묘한 탄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눈여겨 볼 작품으로는, 공공의 공간 서울광장의 대표적 공간인 도서관 건물 전면을 무대로 하여 영상과 사운드, 그리고 문자를 결합한 맵핑을 시도한 프랑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이다. 프랑스가 아닌 한국의, 나아가 시민들의 영상이나 문자들로 그 공간을 점유해보

임으로써, 이른바 도시예술축제의 공공성을 상기시켜주었다. 그러므로 그 공공의 공간을 예술적으로 침입했던 어떤 시민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의 서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온 예술단체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은 이렇듯 축제가 지역 기반의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역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개막작의 역사를 새로이 쓰다

2017년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개막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퍼포먼스 팀 보알라(Voala)가 라이브 음악에 맞춰 공중에서 <무아레>를 공연하고 이승환 밴드와 영국의 록밴드 뒤샹 파일럿(Duchamp Pilot)이 함께 가세하는 양상이었다. 주요 축제에서 늘 그렇듯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도 개막작은 외국의 저명한, 강렬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을 들어오는 것을 상례라 여겼었다. 무수한 공중비행물체의 회전 속에서 하모니를 연주하던 <무아레>의 화려한 움직임의 잔상은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민, 실제의 사람들, 삶이 없었다. 그렇게 축제란 기관주도의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축제 본연의 결을 다시 상기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축제는 한껏 진일보한 것으로 읽힌다. 축제의 주제이자 개막작의 주제, '따로, 또 같이(Unity in Differences)'처럼 개막작부터 국내외 참가팀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짐은 물론, 거기에 예의 시민예술공작단과 일반시민의 협력으로 공연이 구성된 것이다. 개막작에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휴먼 라이트>와 스페인 예술단체 라 푸라 델

바우스의 <휴먼 넷>, 그리고 국내 예술단체 창작중심 단디의 <빛의 기억>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진다. 서로 다른 단체의 작품이지만 작품들은 하나의 관통선을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예술가가 펼치는 대규모 퍼포먼스 <휴먼 라이트>의 시작은 먼 과거, 한국사의 어느 한 지점을 연상시킨다. 배에 탑승한 채 어디론가 함께 떠나는 '피난민'의 이미지 혹은 '이주자'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물소리, 비, 번개, 바람 속에서 이내 난파된 듯한 배의 이미지는 '세월호'의 이미지와 다시 겹친다. 막간에 나오는 붉은 옷을 입은 스페인 집시들의 군무에, 백색의 나비의상을 갖춘 무희들의 춤은 이질적인 것으로 거리두기를 한다. 그럼에도 스페인 집시들의 춤과 노래는 어딘가 제의적이라는 점에서 동질의 감각효과를 낸다. 이어지는 공습경보음, 포그 속에 등장하는 하얀 위생복 차림의 사람들은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들로 마치 전시체제, 혹은 독재군부시절을 연상시킨다. 군중 속에서 등장한 댕기머리 소녀의 형상은 위안부 소녀상과 겹쳐져, 위생복 차림의 그들을, 소녀들의 위생을 폭력적으로 점검하였던 일본 군의들로 이해하게 한다. 이미지들은 굴곡진 한국사의 여러 기억의 층위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면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휴먼 넷> 라 푸라 델 바우스

이어 댕기머리 소녀는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마치고, 서울 광장 공중에 떠있는 노란 배에 탑승한다. 배에서 내린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소녀의 이미지는,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이미지를 발산한다. 그것은 흡사 희생 '제의'와 같다.

그들, 빛나는 '창작집단 단디'

개막을 위해 집합한 세 작품들은 뚜렷한 경계 없이 극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 위로와 희망의 등불을 건네는 콘셉트로 정리되는 <휴먼 라이트>는 오롯이 창작집단 단디의 <빛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보조해주듯 축소되고 만다. 그만큼 <빛의 기억> 속, 공중에 떠 있는 노란 배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다가왔다. 노란 배의 형상은, 2014년 사건발생 이후 희생자 수인 304조각으로 만들어진 배에 노란 종이배를 가득 매웠던 바로 그 기억의 배, 기억하겠다는 약속의 배의 이미지를 환기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서울 시민들의 공유된 기억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예술집단이 특히나 개막작에서 전혀 모자

람 없이 공연할 수 있었다는 점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고유한 집단기억으로서의 여러 이미지들을 들여와 동시대적 제의로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한국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 관객들에게는 '이주자', 혹은 여행자의 불안과 그를 달래는 따스한 노란 달의 이미지일 수도 있었다. 보편의 형상으로서도 진정성을 품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로 오르는 소녀의 이미지와, 하얀 백색 의상을 입은 채 공중의 노란 배 주위를 자유자재 유혹하는 선녀(유령?)의 이미지는 그렇게 역사적 사건들을 소환하면서, 기억을 기원하는 거대한 제의가 되었다. 창작집단 단디가 보여준 거리예술로서의 진일보한 면모는 아마도 국제적 축제의 장에서 대면한 창조적인 자극의 축적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번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시민들의 삶과 공동의 기억에 한층 다가가 축제 본연의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과, 그로부터 새긴 기억과 만나지 못하는 '시민'축제의 퍼포먼스는 불거리, 혹은 소원도 전시물, 스펙터를 그 이상을 넘어 서지 못한다. 다소 잘 어울려내지 못한 일부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개막작의 야심찬 기획에 큰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빛의 기억> 창작중심 단디



03

예술이 만드는 도시의 틈, 그 리듬을 타고 놀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이경미

연극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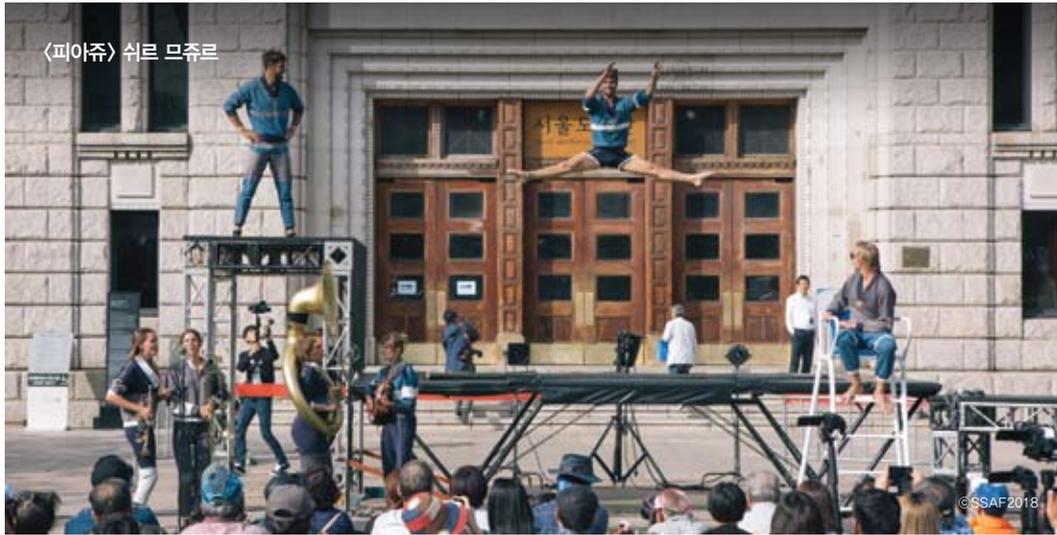
축제 기간 중 내린 비로 인해 그 출렁임이 잠시 내려앉기도 했지만, 올 10월 초에도 서울 청계천로와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는 평소와는 다른 리듬으로 출렁거렸다.

도시 한 복판에서 다양한 거리예술이 만든 탈일상의 공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시간을 한결 가볍고 여유롭게 만들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할 즈음이 아닐까 싶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유대감, 소속감을 구성하는 것은 모든 축제가 처음부터 내내 수행해왔던 역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축제는 정치와 경제, 종교, 그리고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모임과 소통의 공간이었고 또 연대를 다지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축제는 도처에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정치, 경제, 사회적 담론이 부재하고, 여기에 개인의 고립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제반 현상과 관계가 있다. 오늘날 축제는 각각의 사적영역 속에 고립되어 소통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질 잠재적 소지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로 모아들이는 판이다. 또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상을 재발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토대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거리 예술은 단순히 거리에서 행해지는 예술, 즉 일종의 제도권 예술에 대한 대안예술 또는 대체 예술을 말하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일상의 열린 장소에서 행해지는 거리 예술은 분리된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본래 모든 예술은 거리에서, 일상의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1960년대의 반체제적 저항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극장이나 갤러리와 같은 제도적 공간으로부터 끌어내 거리로 가져온 것도 바로 예술이 본래 수행했던 역할과 의미를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

늘 그랬듯이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가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축제의 장소인 거리에 접근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비롯한 주변 거리를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연을 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와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관점이다. 그 가운데 특히 후자의 관점은 향후 거리예술이 시민들과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누고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결국 거기에서 거리예술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열린 장소에 둘러 모여 앉아 보는 즐거움 : <피아쥬>, <시지푸스처럼>

사실 극장이 아닌 광장이나 거리 등 열린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경우 관객의 관심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언제든 관객으로 함유하기도 하지만,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일반시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지라, 그 언어 또한 가능한 한 쉽고 명징하며 또 보편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거리 예술이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과 함께, 말이 아닌 몸, 그것도 관객의 시각을 사로잡을 정도로 극한의 에너지와 테크닉을 보여주는 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일상의 신체적 리듬을 능가하는 시각적, 감각적 에너지와 역시 평상시 도시의 소리와는 다른 음악으로 관객의 청각을 직접 건드리며 스펙타클한 장면을 선보인다.

여러 명의 다국적 아티스트로 구성된 쉬르 므쥬르(Sur Mesure)의 <피아쥬>는 서커스와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저글링과 아크로바트, 라이브 음악을 한데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변에 둘러 모여 앉은 시민들을 즐겁게 해준 장소 고정형 공연 중 하나였다. 놀라운 에너지로 신체의 한계치를 건드리되 이를 유희적으로 넘나드는 퍼포머들의 묘기와, 강렬한 비트의 즐거운 음악이 서울광장의 분위기에 윤희감을 더해준다. 화려하게 변주된 수사를 덧붙이지 않은 굵고 명징한 이리

듬은 언어와 문화, 연령과 취향을 뛰어넘어 그 곳에 모여 앉은 다양한 다수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문제는 <피아쥬>처럼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 자체를 공연의 핵심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펙타클과 함께 '이야기'를 추가해 모여 앉은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이다. 거리예술과 관객의 커뮤니케이션은 몇몇 예외가 있긴 해도 대개 퍼포머의 말 보다는 몸을 통한 수행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말과 달리 몸의 이야기는 기호가 아닌 잠재적 기표이다. 즉 지시대상이 분명한 말과 달리 퍼포머의 몸을 통해 수행되는 이야기는 관객이 그와 관련해 갖고 있던 평소 생각과 만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이야기가 된다. 퍼포머의 몸은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의 삶에 대해 질문하면서 관객의 생각을 여는 일종의 단초 같은 것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몸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을 감안한 특별한 드라마투르ژ적 전략이 요구된다. 예술집단 시파 프로젝트의 <시지푸스처럼> 역시 거대하게 버틴 철근구조물 위 아래를 뛰어 오르고 내리면서 한계를 건드리는 퍼포머들의 신체적 에너지와 역동성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안에는 신화 속 시지푸스처럼 거듭해서 정상에 오르려는 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욕망이 얼핏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투르ژ적 전략은 다소 약해 보인다. 몸의 스펙타클에 이야기가 부수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이야기와 이야기를 하는 몸 사이의 상호성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사라진다. 서커스와 아크로바틱을 넘나드는 퍼포머들의 신체적 기술, 그 신기하고 놀라운 볼거리에 집중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프로젝트 외의 <빨리빨리 서울>은 장소이동형 공연과 장소고정형 공연의 양쪽을 모두 품고 있는 공연으로, 처음부터 이야기에 집중한다. 서울신문사 앞 주변도로 위를 이동하다 세종대로 한 가운데를 최종 무대로 선택하고 행해지는 이 공연은 제목이 암시하듯 숨가쁘게 돌아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보여준다. 불안한 듯 서성이고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급하게 질주하다 무너지고 부딪히는 퍼포머의 몸은 처음부터 지시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다. <시지푸스처럼>과 달리, 이야기 뒤로 밀려난 퍼포머들의 몸은 계속해서 비슷한 감각의 이미지를 나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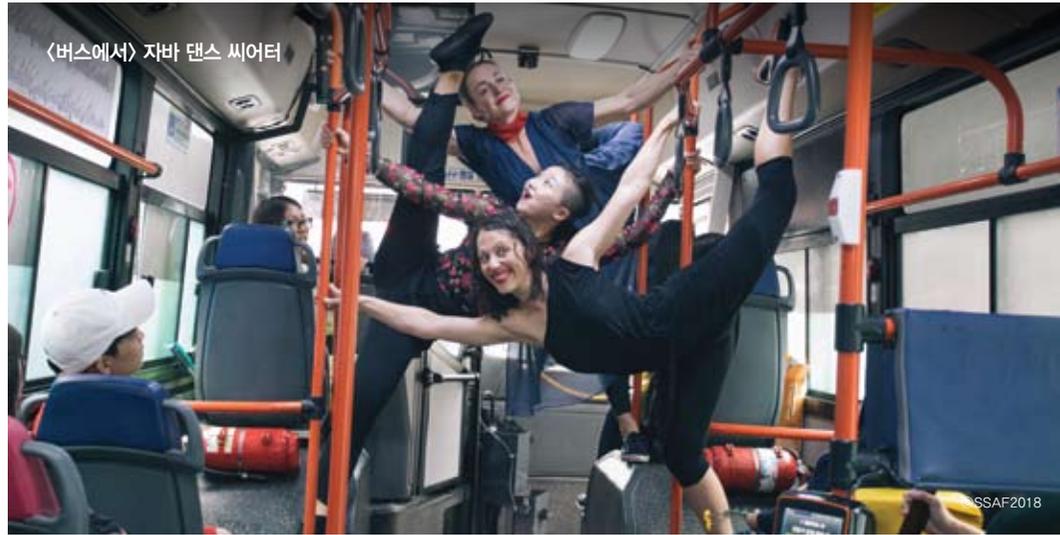
딱딱한 도시의 리듬을 건드린다 : <버스에서>, <완벽한 산책>

필자에게는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의 일상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선'이다. 메트로폴리탄담개 매끈하게 치솟은 빌딩의 직선이 그렇고, 도로와 차도의 모양이 그렇고, 그 차도 위와 아래를 달리는 자동차와 지하철의 흐름 또한 그렇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물리적인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집과 학교, 직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점유한 직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증의 직선, 억압과 위계의 직선 또한 이 도시 안에 있다. 그런데 대도시의 일상과 연결해 필자에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바로 '점'이다. 이 도시 속 사람들은 모두 점으로 존재한다. 혼잡하고, 혼술하는 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점, 아니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린 핸드폰에 몰입되어 있는 점. 앙리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몸과 에너지의 배치는 움직임을 통해, 다시 말해서 공간의 법칙에 따라 공간을 생산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든다. (『공간의 생산』, 앙영란 옮김, 예코리브르, 2011, p.265-266)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기하학적 공간을 부정하는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그때그때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각각의 생명체 역시 자신의 에너지를 통해 거듭 자신의 공간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장소이동형 공연인 <버스에서>와 <완벽한 산책>은 바로 이 미묘한 직선과 점들의 도시 일상에 틈을 내며 도시 공간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한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무수한 도시 직선 위에 곡선을 추가하고, 따로 각각 혼자 떨어진 점들을 다른 점들과 연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몸 역시 더 이상 딱딱하게 고립된 점이 아닌 유연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세 명의 여자 퍼포머와 한 명의 가수로 구성된 자바 댄스 씨어터의 <버스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행해지는 공연이다. 시내버스는 본래 자기의 노선에서 일탈해 청계천 광



장에서 출발해 광화문 광장 주변을 돌아 서울 역사박물관 옆 돈의문 마을 주변을 돌아 다시 종로 1,2가를 경유해 을지로 3가 입구까지 천천히 달린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에게 허락되지 않는 우회전을 하고, 역시 시내버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골목길을 오른다. 이 공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시내버스의 이러한 일탈 위에 자신의 몸을 싣는 것이 낯설면서도 새롭다. 버스가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다급하게 버스를 세우고 탑승한 퍼포머는 분주하고 부산하다. 급하게 버스 카드를 찍고 버거울 정도로 부피가 큰 가방을 몇 개나 둘러맨 모습으로 앉을 자리를 찾는 그녀의 모습에서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이 도시의 숨겨진 삶이 묻어난다. 그런 그녀가 버스 뒤쪽을 향해 걸어도 느닷없이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버스 바닥이며 앉아 있는 시민들의 무릎 위에 쏟아 놓는 순간, 버스 안의 기류가 출렁이기 시작한다. 버스 앞쪽에 앉아 있던 퍼포머와 이후 마치 시민 중 한 사람인 듯 옆 자리에 가만 앉아 있던 또 한 명의 퍼포머가 이 기류에 본격적인 리듬을 엮는다. 그 둘은 버스 의자 손잡이와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를 이리저리 잡고 춤을 춘다. 바닥에 누울 듯 몸을 길게 뻗는가하면, 손잡이에 매달려 동그랗게 몸을 움츠리기도 한다. 평소 같으면 모두 저마다 따로 점으로 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버스 안에 이렇게 생소한 리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돌연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 어디 즈음에 버스를 세운 뒤 시민들과 함께 내려 서로 손을 잡고 춤추듯 도로 위를 걷기

도 한다. 여전히 일상의 움직임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들 역시 조금씩 자신의 몸에 리듬을 엮는다.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버스는 이번에는 돈의문 마을 입구 어디쯤 멈춰 선다. 그리고 퍼포머들은 시민들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어느 갤러리로 이동해서는 그곳을 자신들의 춤으로 채우기도 한다. 버스의 흐름이 맛있는 무표정한 도시에 틈을 만들고, 일상의 공간 곳곳에다 퍼포머의 춤과 노래가 리듬을 엮고, 여기에 시민관객들이 답을 한다. 그 새로운 리듬 위에서 시민들과 퍼포머는 서로 꽃을 나누고 시선을 나누고 미소를 나눈다. 을지로 3가 역 근처 어느 작은 호텔 지하에서 이들의 리듬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버스를 따라, 이 리듬을 따라 함께한 시민들의 몸은 잠시였지만 한결 가볍다. <완벽한 산책>(1 와트)에서 벨기에 '광대' 피에르 필라트(Pierre Pilatte)는 더없이 가볍고 자유롭게 흔들리면서 딱딱한 도시의 틈을 건드린다. 무중력 상태처럼 흔들리듯 걷다가 빌딩 안, 그 앞 화단 위, 다리 난간 어디든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이 가닿는 곳에 머물고 맴돈다. 심지어 건물 벽에 잠시 기대서 쉬는가 싶더니 그것도 모자라 그 벽을 타고 오르려고 까지 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동선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선뜻 시선을 건네고, 먼저 손을 내밀며, 어깨를 기대며 함께 걷기도 한다. 말이 아닌 눈으로, 그리고 말이 없는 몸으로. 낯선 이들을 향한 편견도, 시간에 대한 강박도, 경쟁에 대한 불안도 느껴지지 않는 그의 몸은 언제든 타인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몸이며, 그래서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된 몸이다. 이런 그의 몸은 시장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에 의해 점령된 몸에서 확연하게 비껴나 있다. 그저 일상의 속도로, 일상의 시간으로 그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필라트의 몸이 닿는 순간 화들짝 놀라 저만치 물러선다. 자신의 일상 속에 느닷없이 개입한 이 사심 없는 몸을 끝내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그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한 대비와 단절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무겁고 억눌린 도시의 몸, 도시의 공간이다. 물론 대부분이 이내 어색함을 털고 그의 리듬에 합류해 어울린다. 그 어느 경우가 되었던 이 광대의 몸은 자신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도시 안에서 점과 점을 잇는 매개체가 된다. 그리고 경직된 일상의 선들이 여유롭게 긴장을 풀고 유동하게 만든다. 그의 산책은 자신의 무겁고 경직된 현대 도시의 삶을 건드리는 수행적 행위다. 이 두 공연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는 열린 공연이었다. 무엇을 보여주기 보다 참여의 행위를 통해 공간 안에 리듬을 만들고, 이를 통해 도시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의 삶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수행적 공연이다.

도시예술, 도시예술축제를 계속 기대하며

로버트 니스벳은 그의 <공동체를 찾아서>에서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개인의 자유는 가족, 교회, 지역성, 지역사회, 또는 자발적 단체 같은 사회구조를 통해 중재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사회구조들이 점점 퇴보하거나 사라지는 가운데, 개인은 '거의 한결같이 원자화된 개인으로 축소'되면서, 결국 개인은 '고립되고 소속감이 없는' 고독한 존재로 추락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Robert Nisbet and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Tradition", Ludwig von Mises Institute, <http://mises.org/media/4211>).

공동체의 상실과 개인의 고립감에 대해서는 니스벳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었던 바, 이는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고립감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치, 경제적 정책보다 상실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도시예술에서 도시는 단순히 공연의 장소, 전시의 장소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집적되어 있는 상징적 집합체이다. 도시예술의 공공성은 바로 이러한 도시에 개입해 틈을 내고, 그 안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현재지를 반성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개별적인 창작을 통해서건, 이처럼 축제의 프레임 안에서건 자신의 공공성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도시예술은 더 이상 제도권 예술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진정한 예술행동으로 시민들 안에서, 도시 공간 안에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04

현대무용 단체들의 약진

강일중

공연 칼럼니스트, 여성신문 공연전문기자,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한 글과 이미지 기록 및 리뷰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무용은 기본적으로 추상성이 강한 공연예술 장르이다. 대부분 텍스트도 없고, 움직임만으로는 뭔가를 얘기하는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다. 더러 무용수들이 대사도 치고, 무대나 오브제의 활용 등을 통해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하기는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인식되는 분야다.

이에 비해 거리예술은 관객 입장에서 보면 친밀도가 훨씬 높은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태생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거리를 오가는 볼특정 다수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술이어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재도 일상이나 보편적인 관심사에서 따온 것들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 2~3년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현대무용이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프로그램에도 현대무용 작품이나 현대무용 요소가 짙은 복합장르의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특히 지난해 LDP무용단의 <룩룩> 처럼 원래 극장 버전의 작품으로 소개되어 관객의 호응을 받았던 작품을 거리에서 선보이도록 공식초청된 작품이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폼바>와 리브레호벤의 <저항> 등 2편으로 늘어났다. 이들 두 현대무용단은 지난해에도 이미 자유참가작 형식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에 발을 내디뎠었다. 유지영 안무 겸 무용수는 작년에 자유 참가했다가 관객의 호응으로 이번에 공식초청된 사례. 작품을 통해 인간 신체의 근본적인 관념에 대한 질문을 던져온 그의 작품명은 <인체圖>였다. 거리무용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곧스댄스컴퍼니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식초청작 대열에 섰다. <서울 그리고 오늘>이라는 작품을 들고서다.



<다크니스 폼바> 모던테이블

작품별로 공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던데이 블의 <다크니스 폼바>(안무/연출 김재덕)는 한국 전통의 각설이(폼바) 타령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서민들의 울분이나 한, 그리고 울부짓음을 다양한 이미지로 풀어낸 이 작품은 현대무용임에도 대중적 호소력이 짙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울광장에 모인 관객들이 이 작품을 현대무용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이 융합됐다는 점이다. <적벽가>를 포함한 판소리가 끼어드는가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 소리의 형식으로, 또 애국가의 일부 소절이 록 음악처럼 중간 중간 삽입됐다. 김재덕을 포함한 두 명의 소리꾼들에 의해서다. 전통을 소재로 한 작품의 성격을 반영한 듯 공연 공간은 마당 같은 4각 구조. 관객은 사방에 둘러앉거나 서서 출연자들의 호흡을 느끼며 공연을 보도록 했다. 리드기타, 베이스, 드럼 연주자와 소리꾼 두 명이 각 면의 중간에서 라이브 연주와 소리를 하는 가운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된 각설이 타령 외에도 때로는 강렬한 헤비메탈사운드, 또는 하모니카 연주가 긴 블루스록 계열의 음악이 흐르면서 공연의 분위기에 자주 변화를 시도했다.

위, 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일곱 무용수의 춤은 역동적이었다. 부드럽고 날카로운 움직임이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가 하면 후반에 각 무용수가 쇠젓가락을 바닥에 놓인 마이크 앞에서 두드리며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신선해 보였다. 관객 입장에서는 현대무용이라기보다는 독특한 내용과 형식의 거리공연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중성을 고려하면 거리예술축제의 프로그램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10월 6일의 서울광장 공연 때 관객들은 환호했다. 다만, 관객이 사방을 둘러서 보는 마당에서의 놀이를 연상시키는 공연이었음에도 출연자와 관객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연출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리브레호벤의 <저항>(안무 양호식)은 인간이 삶에서 느낀 사회(타인)의 간섭과 강요, 과도한 관심 등에 대한 저항의식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전에 이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에서 공연되었던 이 작품은 서울거리예술축제 공식초청작이 되면서 거리공연에 맞춰 작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 눈에 띄었다. 페인트 낙서가 그려진 대형 비닐이 가장 중요한 오브제로 활용된 것이 큰 특징이다. 무용수들은 이 비닐을 때로는 팽팽하게 퍼 한 무용수를 밀어내는가 하면 그를 비닐로 뒤집어 씌우거나 말아 넣어 압박하면서 억압과 폭력 그리고 저항의 심리를 나타낸다. 또 피해자 역할 무용수의 허반신을 밀어 차면서 왕따시키고 외톨이로 만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 버전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역력히 보이고, 무용수들의 움직임이나 오브제의 활용이 구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 힙합 같은 움직임을 통해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친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움직임이 단조롭고, 큰 틀에서의 장면 변화가 없어 다소 지루함을 안겨줬다. 특히 비닐 오브제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현대무용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인상을 줬다. 현대무용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추상성을 구체적인 이미지의 움직임이나 오브제 활용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장면 구조의 단순성으로 그리 큰 빛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졌다.

곧스댄스컴퍼니의 <서울 그리고 오늘>(안무 박재영)은 <다크니스 폼바>나 <저항>처럼 댄스플로어를 깔지 않은 공연이었다. 거리공연의 정신에 보다 투철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거리무용 작품은 청계천로 모전교 근처의 수변 공간과 서쪽 분수대 위의 광장을 공연장소로 잡았다. 댄스플로어 없이 공간 그대로를 춤과 퍼포먼스의 장소로 활용했다. 플라스틱 시대로 일컬어지는 지금, 일회용처럼 너무 쉽게 버려지는 삶과 관계 속에 사는 현대 인간이 모습을 움직임과 플라스틱 오브제를 통해 풀어낸 작품이다. 단체 이름에 댄스컴퍼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곧스댄스컴퍼니는 극장 공연보다는 거리예술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다양한 거리예술축제에 모습을 드러내 왔었다. 그만큼, 터진 공간의 활용이나 움직임의 구성이 탄탄했고, 무용수들과 거리가 흡사 한 몸이 된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해냈다. 특히 초반에 남자 셋, 여자 셋 등 6명의 무용수가 각자 수변 공간의 이곳저곳에서 거의 부동의 이미지로 있다가 행인들 사이로 서서히 퍼포먼스를 하며 주 공연 공간으로 향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행인의 오가는 공간과 무용수들의 춤 공간이 완전히 일치하며 퍼포머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주 무대에서는 얼굴에 밀가루 칠 분장을 한 무용수들은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돌 바닥 위에서도 무릎보호대만 한 채 높은 기량의 춤을 선보였다. 약 40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깔고 한 남자 무용수가 비닐 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숨 막히는 사회에서의 고통을 드러내는 듯 뒤틀린 움직임을 보이면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도 돋보였다. "스쳐 가는 사람들의 몸짓,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아무렇게나 펼쳐진 바닥과 벽, 모든 것은 무대가 되고 장치가 된다."는 곧스댄스컴퍼니의 평소 지향점이 작품 속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모전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변 산책 공간의 한 작은 구석을 무대 삼아 펼쳐진 유지영 안무의 <인체圖>는 10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의 공연임에도 강한 인상을 심어준 현대무용 작품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안무자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겸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0년 동안 쓴 5천 쪽 분량의 노트 중 일부를 발췌한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북」속 제7장 '인체의 비례와 움직임'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이다. 유지영은 깊이 있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를 자신에게 덧입힌 새로운 인체도를 구상하고 그것을 몸 움직임과 영상, 사운드를 나열식으로 재구성해 무용작품으로 만들었다. 유지영의 1인무이기도 한 이 작품은 일종의 개념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무대 뒷면에 투사된 영상 속의 움직이는 도형과 그의 몸 동작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이었다. 모든 관객이 이 작품을 현대무용이라고 인식하고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춤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흥

미로운 작품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를 졸업한 유지영은 그간 신체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라어만 한다>, <신체 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두를 위한 몸만들기>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에는 이들 작품 외에도 공식초청작 중 <빨리빨리 서울>(프로젝트 외), <블루:流>(리얼발레그룹), <필드홀러>(류장현과 갠블러 크루), 자유참가작 중 <일상번역기>(안무 허윤경) 등이 현대무용이거나 현대무용 요소를 가진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숫자로 볼 때 지난해와 올해는 33~34개의 서울거리예술축제 공식초청작 중 현대무용이나 현대무용 요소가 짙게 들어간 작품 수가 각각 7개로 같은 수준이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편수는 같았지만 지난해는 외국작품 비중이 컸으나 올해는 국내작품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다. 모던데이블이나 리브레호벤 등 국내 현대무용 단체들의 참여 의지가 높았고 축제 사무국도 국내 단체의 작품 제작능력을 높이 사 프로그램 편성 때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특히 해외 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들이 대거 입국해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참관한 후 좋은 작품을 초청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국내 단체들이 이 축제 참가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다. 실제 적지 않은 해외의 예술감독들이 올해에도 <다크니스 폼바>나 <인체圖> 같은 작품들을 자국 축제에 초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축제 사무국은 밝혔다. 일반대중에게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대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며 볼 수 있도록 단체들이 장르융합을 시도하며 극장 외의 공간을 공연장소로 찾고 있는 것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현대무용의 노출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 속에 거리예술의 성격에 맞게 추상성을 덜어내고,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경험이 별로 없는 거리의 일반 관객과 예술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현대무용단체들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05

〈종이 비행기〉, 탈영토화의 세계 속으로

서명수

중앙대 불문과 교수

I.

거리예술(les arts de rue)은 〈벽 밖에서(hors les murs) 행해지는 예술〉로 정의된다. 프랑스 거리예술의 대부, 미셸 시모네(Michel Simonet)는 ‘벽 밖에서’가 내포하는 의미를 실제로 예술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lieu)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이라는 미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이라는 이 미학적인 개념은 들뢰즈(Deleuze)가 “누군가가 영토를 떠나는 운동”⁴⁾이라는 뜻으로 언급한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들뢰즈는 생성의 모습이란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가 부단히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착의 사유에 의해 억압 받는 생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코드화되고 영토화된 기존의 질서와 문화에 저항하고, “다수의 언어 안에서 만들어진 소수자의 문학”⁵⁾을 구현함으로써 부단히 탈영토화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4)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967-970쪽을 보시오.

5)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카프카(KAFKA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이진경 옮김, 동문선, 2001, 43쪽. 여기에서 소수자의 문학이란, ①“말(랑그langue)의 탈영토화”로 말(랑그)이 소수의 탈영토화에 의해 변용되는 것, ②“개인을 정치적 즉각성(l'immédiat-politique)에 연결시킴” :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 ③“언술행위(énonciation)의 집합적 배치” : 모든 것이 개인적인 주체성의 문제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가치(의미)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같은 책, 43-48쪽을 보시오.

2018년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선보인 프랑스 라 메앙드르 (La Méandre) 극단의 <종이 비행기(Avion Papier)>는 공연 장소에서부터 무대, 관객과 공연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소수자의 문학”을 구현하고, 탈영토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우선 극단이 구성원에 있어서도 조형예술가, 무대미술가, 작가, 배우, 사진작가,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로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작품 <종이 비행기>도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들이 혼합된 복합예술이었다.

II.

청계광장에 모인 관객은 광장 한쪽 편에 세워진 작은 컨테이너에서 예약된 자신의 이름을 확인받고 공연 시작 전까지 잠시 기다렸다. 예약 당시 미리 와서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 지시되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이렇게 관객이 공연을 기다리는 행위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이나 역으로 나와서 기다리는 느낌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시작 전 대기 장소로 사용된 컨테이너는 항공기의 탑승을 기다리는 대합실과 같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한 안내자가 나타나 예약자들을 또 다른 컨테이너로 인솔하였는데, 그 컨테이너는 여행자들이 타고 다니는 카라반(Caravane)의 내부 같기도 하고, 작은 비행기의 내부 같기도 했다. 운전석 또는 조정석에서 관객을 기다리던 배우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머리에 종이로 만든 황금 왕관을 쓰자 본 공연이 시작되었다.

본 공연시간은 약 20분이었지만, 미리 와서 대기한 시간까지 합치면 전체 공연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이 아닌 극장 밖의 컨테이너에 모여 든 관객은 바로 이 이동을 통해 이미 1차적 탈영토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다시 예약을 확인하던 컨테이너가 대합실로, 대합실에서 카라반으로, 카라반에서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2차, 3차...의 탈영토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탈영토화의 경험과 함께, 일반 시민에서 예약자로, 대기자로, 카라반 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로 바뀌어 가면서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비정형의 공간과 시간으로 옮겨가고, 스스로 무한히 변화하는 생성의 시간을 만난다.



<종이 비행기> 콜렉티브 라 메앙드르

III.

<종이 비행기>는 장르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관객은 흑백의 화면에서 한 훌쭉한 여인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다. 이야기는 큰 눈, 가는 어깨의 이 여인이 가방을 들고 어디로인가 떠나면서 시작된다. 떠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여인의 발 앞에 종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뿐이다. 관객은 곧 여인이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거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반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마치 떠나는 것 자체가 여인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인은 세상에서 세상으로, 사람들의 틈에서 틈으로 끊임 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여행, 세상을 부유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여행을 한다.

또한 이 여인의 여행은, 프레임을 넘어서는 여행이다. 프레임은 영화적 현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존재론적 현실을 상징하기도 한다. 프레임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프레임은 시야를 축소하고,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존재를 가두고 사유를 억압한다. 일반적인 영화의 이미지는 바로 프레임 안, 즉 화면 안에서만 존재하지만, 그러나 <종이 비행기>의 여인은 프레임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프레임을 넘어서고, 프레임 밖으로, ‘벽 밖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화면을 넘어서서 카라반 또는 비행기로 변한 컨테이너의 모든 벽면 도처에 이 여인은 나타나고 존재한다.

서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이 비행기>는 이야기가 아니거나 이야기가 아예 없다. 이야기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행동이란 어떤 상태A에서 다른 상태B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이 비행기>에서는 이 상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 비행기>에서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머무는 지점이나 도달하는 지점과 같이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동’은 있으나 상태의 변화는 없고 그래서 행동도 없다. 이렇게 지속적인 동적 상태는, 이 상태에 언어기호를 대응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는 방식의 담화화, 즉 행동을 지칭하는 담화화가 불가능하다. <종이 비행기>는 오직 담화로 특정화(identifié)되기 이전의 순수의미로서의 ‘부정법(infinitif)’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담화는 의미를 뜻하지만, 이때의 의미란 고정된, 부동의, 확정된 의미이다. 부정법은 무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의미의 생산 가능성, 그 잠재성을 뜻한다. 따라서 <종이 비행기>의 여인은 프레임을 넘어서서 무한한 의미 생산의 세계 속으로, 아무런 정착점이 없이 떠도는 유목민의 세계 속으로, 영토에서 영토로 영원히 이동하는 탈영토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이 비행기> 콜렉티브 라 메앙드르

IV.

들뢰즈는 카프카(Kafka)의 『성』에서 <숙인 고개(tête penchée)>와 <쳐든 고개(tête relevée)>라는 두 계열을 구분해냈는데⁶⁾, 전자는 <초상화-사진>로 나타나고, 후자는 <음악적 소리 또는 소음(son musical)>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숙인 고개>가 고정되고, 복종된 욕망, 중립화되고 접속이 끊긴 욕망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를 영토성(territorialité) 또는 재영토화(reterritorialisation)의 표상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쳐든 고개>는 욕망의 치켜들고 새로운 접속을 향해 열려 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탈영토성의 표상으로 해석하였다. 들뢰즈가 <쳐든 고개>의 표상으로 언급한 '음악적인 것'은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음악이 아니라 "순수한 음향적 질료(une pure matière sonore)"⁷⁾. 로서의 음악을 말한다. 순수 음향적 질료로서 음악(소리)는 대립이나 모순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생성과 변이'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종이 비행기>에서도 음악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 음악은 '형식적으로 잘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다. <종이 비행기>에서의 음악은 전통적 형식에 입각한 '고개 숙인' 음악이 아니라, 음악적 소통의 형식은 지녔으나, 그러나 순수한 질료로서의 소리 또는 음향적인 무엇이다. 물론 전통적이고 세련된 악기들도 이 소리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종이 비행기>에서 사용된 악기들은 사실 악기라고 할 수 없는 일상의 도구들, 아이들의 장난감, 심지어는 스키치 테이프,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다. 이 도구들이 악기가 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소음들이면서 동시에 음악소리를 만들어 낸다. 많은 거리예술의 음악 공연이 바로 이 불협화음, 분화되지 않은 소리나 소음 등에 소리 자체, 그 지료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적 형식 속에 갇힌 질료를 해방시키는 행위로, 숙인 고개, 즉 억압된 욕망을, 아무런 항거도 없이 순응해버린 그 욕망을 풀어놓아주는 것과 유사하다. 일상의 물건들이 도구가 되고, 악기가 되면서 갇힌 소리들이 풀려나고, 억압된 욕망이 고개를 든다. 소위 세상의 소리들이 '탈주선(ligne de fuite)'을 타는 것이다. 이렇게 <종이 비행기>는 탈영토화를 통해 음악에 질료를 되돌려 주고 전통과 관습과 형식에 억압된 '소리성(sonorité)'을 해방시킴으로써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 전통음악과 나아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6) 같은 책, 11쪽
7) 같은 책, 같은 쪽

V.

벽 안과 벽 밖은 문명과 자연의 대비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벽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그냥 자연으로의 일회적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벽 안과 벽 밖은 단순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단순 대립의 관계라면, 단 한번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벽 안과 벽 밖은 부단히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벽 안에서부터 벽 밖으로 나오는 무한한 탈영토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벽 밖의 예술, <종이 비행기>는 가려진 한 여인의 멈춤 없는 여행을 통해서 또 질료로서의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카라반으로 또 비행기로 옮겨 타게 하면서, 문명화되고,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미래도 없이 스스로 고개를 숙인 존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것, 무한히 변하고 생성되는 것, 그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 또 모든 예술가들에게도 진정한 예술 작품이란 복제의 문명을 반성하고 '소수자의 문학'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무한 생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이 비행기> 콜렉티브 라 메앙드르



<종이 비행기> 콜렉티브 라 메앙드르

06

단단한 캐릭터, 흥미로운 드라마 〈외봉인생〉, 〈물질 2 물질하다가〉

김소연

연극평론가. [컬처뉴스], [weekly@예술경영] 편집장을 지냈다. '커뮤니티와 아트', '삼인삼색 연출노트', '극작가리서치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비평문/매체와 더불어 비평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참여 작품들을 유형화해봤다.

불꽃, 곡예, 거대 인형 혹은 구조물 등 공간의 확장을 강조하는 스펙터클 중심의 공연(〈휴먼 넷〉, 〈길_Passage〉, 〈사이렌의 노래 - 도시휴식〉, 〈빛의 기억〉), 스펙터클보다는 서사와 캐릭터의 구축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공연(〈총동〉, 〈외봉인생〉, 지형 지물 등 공간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공간연출에 끌어들이 공연성을 확장하는 공연(〈아담스 미스〉, 〈물질 2 물질하다가〉, 〈시간의 향기〉), 기예 중심의 광대극 전통을 현대 거리극에 접목하고 있는 공연(〈블록〉, 〈피아주〉, 〈오직 빠네뿐〉, 〈키키리스탄 왕실밴드의 습격〉, 〈No인[세 노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리서치 기반의 공연(〈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은 이동공간으로서의 '거리'를 해석하고 연출하는 이동형 공연(〈완벽한 산책〉), 극장공연으로 창작되었지만 거리공연을 통해 퍼포먼스의 분방함을 강조하는 공연(〈다크니스 폼바〉). 정치한 분석이나 분류는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연은 어느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기보다는, 여러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외봉인생〉은 구체적인 캐릭터로 전개되지만 차이나스 폴 기예의 긴장감만큼이나 스펙터클도 퍼포먼스의 중요한 내용이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는 리서치가 중요한 방법론이지만 광장 전체를 압도하는 시각 연출이 퍼포먼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블록〉과 〈피아주〉는 기예를 과시하는 광대극 전통보다는 〈다크니스 폼바〉처럼 정교한 구성과 분방한 퍼포먼스성을 중첩시키는 것이 더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이처럼 개별 공연이 꼭 하나의 유형, 하나의 특징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방식의 설명이 때로는 작품을 단순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르도 규모도 서로 다른 작품들에서 공통의 특징이 발견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공통의 특징이란 공통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블랙박스 극장의 폐쇄된, 한계지워진 공간과 대비되는 확장된 공간성, 지형 지물 등 특정한 구조의 물리적 공간, '거리'의 사회적 역할, '거리'에서 확장된 '광장'의 사회적 역할, 광장을 무대로 하여 재현되는 퍼포먼스의 사회적 역할 등등에 대한 질문이 규모, 장르, 테마가 다른 공연들을 가로지르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등 거리극, 거리예술을 메인 테마로 한 축제만이 아니라 거리극, 거리예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리예술 창작자와 공연도 증가해왔다. 그만큼 저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인데, 양적 확대에 머물지 않고 거리예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의 <외봉인생>이나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물질 2 물질하다>가 인상적인 것도 입문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점, 개별 단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장르와 방법론이 거리예술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구체화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외봉인생>, <물질 2 물질하다>는 장르나 콘셉트에서 시각적 스펙터클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면서도 단단한 캐릭터와 서사를 구축하는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기예를 수행하는 몸의 표현성, <외봉인생>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은 서커스라는 특화된 분야를 기반으로 한 창작단체다.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지만, 단체의 단독 공연은 물론 다양한 창작자들과의 협업 등 활발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안재현의 공연을 처음 본 것은 다페르투토 스튜디오의 <다페르투토 스튜디오>라는 공연이었다. 이미 바로 직전 적극 연출 등과 <봉앤줄>이라는 창작 서커스 공연을 올린 직후였다. 단체명을 공연 제목으로 한 <다페르투토 스튜디오>는 창세기의 말씀을 텍스트로 하여, 퍼포머의 퍼포먼스로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관객들이 직접 오브제를 완성하고 설치하면서 예의 말씀을 장면화하는 등, 다페르투토 스튜디오의 방법론과 분방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공연에서 안재현은 봉과 줄 기예로 장면을 만들어간다. 당시 공연에서 안재현의 기예가 인상적이었던 점은, 수행하고 있는 기예의 기술 그 자체를 도드라지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퍼포먼스는 훈련된 기예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점을 감추는 것도 아니다. 입문기였기에 고도의 기술을 보여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퍼포먼스의 구성 자체가 기예를 수행하고 있는 퍼포머를 주목하게 하는 것

이었고 퍼포머에 대한 주목은 완성된 기예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퍼포머가 벌이는 싸움, 기예의 수행을 방해하는 혹은 기예의 수행을 위해 저항해야 하는 온갖 외적 힘들, 그 힘들과 싸우고 있는 몸의 안간힘과 몸의 통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외봉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공연은 퍼포머가 적극적으로 캐릭터를 수행한다. 퍼포머가 기예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연의 전개는 이렇다. 거리의 신호등 위에 퍼포머가 앉아 있다. 퍼포머는 긴 봉에 달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봉을 타고 신호등을 내려와 긴 기둥을 어깨에 매고 이동한다. 공연은 이미 신호등 위의 노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기둥을 옮기고 세우는 등의 과정이 모두 공연을 구성한다. <다페르투토 스튜디오>에서도 줄, 기둥 등 기예에 앞서 그것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는 과정이 퍼포먼스에 포함되는데, 이번 공연은 더 적극적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러한 과정이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어간다. 기둥이 세워지고 본격적인 기예가 펼쳐지는 장면에서 안재현의 퍼포먼스는 어렵게 기둥에 오르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추락이라 할 만큼, 안재현은 급작스럽



게 하강하고 거의 바닥에 닿을 것 같은 높이에서 갑자기 멈춘다. 추락은 오르는 것만큼이나 긴장감이 넘치는 것이었고 그만큼 고난도의 기예였다. 물론 기예의 구성이 오르고 추락을 단순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기둥을 오르는 여러 기예들, 정상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기예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하여 안재현의 기예는 오르는 과정의 고단함, 기둥 꼭대기의 아찔함, 수직의 힘에 저항하는 수평의 도전, 예기치 않은 급작스러운 추락, 지면 가까이에서의 안간힘 등 그 자체의 기술만이 아니라 상황, 심리, 행동을 보여준다. 한편 이 공연은 안재현의 1인 퍼포먼스가 아니다. 안재현이 기둥에서 기예를 펼치는 동안 아래 무대에서는 소리꾼의 소리와 북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소리꾼의 소리는 처음 공연을 열었던 안재현의 노래가 다시 경기민요/서도소리의 선율로 변주되면서 내내 안재현의 퍼포먼스를 감싸고 있다. <외봉인생>은 기예, 기예를 수행하는 퍼포머 그리고 노래와 연주, 이 세 표현의 층위가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어간다. 이 중 구체적인 서사와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은 노래이다. 반면 기예는 노래에 비해 추상적이기에 구체적인 서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감정, 분위기 등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구축한다. 기예의 구성은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그러면서도 수직

의 힘과 수평의 저항을 대비하는 등 추락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잘 짜여진 전개를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기예의 구성 자체가 이미 고독, 고단함 등의 캐릭터와 서사를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퍼포먼스를 시작할 때의 안재현의 노래와 소리꾼의 소리는 이미 강력한 캐릭터와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퍼포먼스에 대한 사족같은 설명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또한 기예를 수행하고 있는 퍼포머는 고단함과 고독만이 아닌 두려움, 위험을 무릅쓴 도전, 성공의 기쁨 등등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보여준다. 도리어 노래가 구체적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전개하면서 기예퍼포먼스의 다양한 국면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질감의 충돌도 두드러졌다. 소리꾼의 소리가, 서도소리의 단아함이 있지만, 전통 소리표현의 울림이 강하다면, 퍼포먼스는 오래 끄는 울림과 달리 분절되어 있는 움직임으로 전개된다. 노래의 가사만큼이나 선율과 리듬의 특징과 퍼포먼스의 전개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되고 배치될 필요가 있다.

고립 그리고 놀라운 반전, <물질 2 물질하다가>

<물질 2 물질하다가>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리서치' 섹션에서 공연되었다. 안산리서치는 '안산'의 지역성에 밀착한 작품을 개발하고자 리서치 기반의 작품을 프로그래밍한다. 이 공연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청소년 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워크숍에서는 배우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자신들의 일상을 돌아보고 그것을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또 수조 안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연습해왔다고 한다. 『물질 2 물질하다가 워크숍을 다녀오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afestival/221255924833>, 최종 접속일 : 2018년 10월 20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이 작품은 관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전시형 퍼포먼스로 소개되었다. 공연 사진을 보면 안산 공연의 경우, 서울 공연에 비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덜 엄격하다든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반면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는 '전시'나 '참여'가 강조되지 않았다. <물질 2 물질하다가>는 무대 위 4개의 독립된 수조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수조에는 물이 담겨 있는데, 퍼포

머의 입과 코 주위에서 칠랑거리는 높다. 수조의 폭은 한 사람이 작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수조 안 퍼포머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의상과 소품을 갖추고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단정한 정장차림의 젊은 남성, 임신부, 화려한 속옷을 입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벗는 여배우 등등 예의 시각적 표현들과 텍스트를 통해 각 수조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의상, 소품, 행위가 일상적이고 구체적이라지만, 좁은 수조 안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일상성을 재현할 수는 없다. 작은 움직임도 물의 저항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움직임만이 아니다. 옷자락, 머리카락 등등도 마찬가지다. 물 속에서 정장차림에 가방을 맨 젊은 남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시각적 표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한편 이러한 일상적인 기호들의 비현실적인 움직임이라는 시각 연출과 함께 각 인물들이 자신의 일상을 반추하는 독백이 퍼포먼스와 함께 흐른다. 네 인물들의 이야기에서는 이들의 삶 안쪽 깊숙이 웅크리고 있는 불안이 감지된다.

독립된, 그래서 단절된 4개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퍼포먼스는 공연의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단절된 4개의 수조에 각각 관객들 그리고 함께 워크숍을 했던 아이들

이 초대되는 것. 한명이 겨우 움직일 만큼 좁은 수조에 새로운 인물이 초대되고, 물의 높이는 입과 코 주위를 칠랑거리던 데에서 머리를 넘길 만큼 높아진다. 수조 안의 인물들은 서로 부딪혀 안거나 혹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숨쉬기를 도와준다. 숨을 참고 숨을 몰아내쉬고, 다시 깊게 들이마시는 '물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고립되어 있던 각 수조의 이야기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만남은 수조 안의 인물들을 수조 밖으로 이끈다. 여전히 4개의 수조는 제 각각 떨어져 있지만, 이야기는 수조 안과 밖 수조를 둘러싸고 있는 관객들에게로 확장되는 것이다.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퍼포먼스의 특징과 테마를 연결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 작품에서 네 개의 수조가 퍼포먼스의 형식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장치였다면, 예를 들어 <몸의 윤리>에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퍼포먼스가 전개되는 중요한 설정이다. 수조 그 자체 그리고 물 안에서의 몽환적인 움직임이 시각적 장관을 연출하는 한편, 독립된 수조, 고립된 인물들, 몽환적 움직임과 반성적 독백 등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구성해낸다. 서울공연은 객석과 무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지

만, 야외 공간은 실내 극장에 비해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유동적이다. 공연이 마무리될 즈음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무너지고 수조와 객석이 뒤섞이는 것은, 앞선 초대를 공간 전체로 확장하는 연출이었다.

비단 두 작품만이 아니다. 올해는 확연히 눈에 띄는 작품 한편보다는 국내 단체와 작품들의 다양성과 안정감이 주목되는 해였다. 언급한 두 작품처럼 장르이든 방법론이든 혹은 개별 창작자의 스타일이든 그것이 구체적인 공간, 장소, 테마를 통해 안정감 있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감은, 특정한 형식이나 기술의 재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이 다루는 기술, 양식, 형식을 캐릭터와 서사로 배치하고 변형하고 구성하는 데에서 온다. 그만큼 퍼포먼스의 대중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야기도 한층 뚜렷해지는 것이다. 객관적인 통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공연장마다 관객들의 참여가 높았고, 퍼포먼스에 대한 집중도도 높았다. 여러 가지 점에서 거리예술의 저변을 확인하는 축제였다.



<외봉인생>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07

관객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고민하다 〈물질 2 물질하다가〉⁸⁾

사실 <물질 2 물질하다가> (이진엽 연출/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축제와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작품이다.

가족 단위의 시민 관객이 대다수인 축제의 현장은 대개 떠들썩하고 흥겨우며 정겨운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물질 2 물질하다가>는 따뜻하며 명확하기 보다는 어렵고 시니컬한 편이다. 모호하며 느슨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펀치를 날카롭게 날리는 작품이랄까. 매끈하게 다듬어지기 보다는, 개성이 강하며 사적인 냄새가 짙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모습이다. 아무튼 축제와 그다지 어울리는 작품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앞선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올해 상반기에 20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소개된 이후에 바로 하반기의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도 여러 관객과 만났다. 이것은 우선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따로, 또 같이'란 올해의 슬로건과 강하게 만나기 때문이다. 축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흔재된 도시, 서울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화두로 삼는다. <물질 2 물질하다가>는 축제의 화두를 공연의 언어로 관객의 예술적 체험으로 뒤바꾼다. 은근하며 부드럽게 혹은 꿈처럼 허무하면서도 강렬하게 말을 건넨다. 작품은 10대의 난민들과 함께 만들었으며, 그들이 직접 출연한다. 우연하게도 작품이 안산에서 초연된 이후에,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의 정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며 작품의 의미는 보다 예리해 질 수 있던 것 같다.

이진엽 연출가와 코끼리들이 웃는다 단체는 스스로의 작업을 '장소성, 관객참여, 커뮤니티'란 단어로 설명한다. 셋은 모두 작품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들인데, 특히 '관객참여' 부분은 <물질 2 물질하다가>에서 특이한 위치를 점한다. 관객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란 고민과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도는 최근의 공연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혁신적인 변화와 연관되기도 한다. 공연의 형태에 영향을 주거나 관객이 가져가는 체험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혹은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공연 예술축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 형태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참여자가 의미를 완성하는, 참여자가 의미의 주체가 되는 예술 현장은 바로 축제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물질 2 물질하다가>는 관객참여가 가질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들을 잘 보여준다.

엄현희

거리예술과 축제, 아동청소년극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며, 10여 년간 평론 작업을 해왔다. 연극과 평론이 동시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8) 이 글은 작품의 연출가 이진엽과의 작품에 관한 인터뷰 후에 작성되었다. 인터뷰는 주로 작품을 둘러싼 배경, 동기, 변화의 과정 등에 대해 이뤄졌다.

관객의 심리를 조종하다

만일 사람들이 A를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를 강하게 밀어붙여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B 즉 A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자유와 함께 제안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A에 대한 근근한 권유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성이 함께 제시될 때 사람들은 A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훨씬 능동적으로 행한다. 자발적 의지로 의도된 상황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진엽 연출가와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관객참여'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의 상황에 빠져들어도 괜찮다고 부드럽게 권유하며 혹은 거부해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관객과 만나서, 관객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이끈다. 이것은 꽤 효과적이다.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웃을 흘랑 벗거나, 멀쩡하게 웃을 입을 채 물속에 뛰어들게 된다.

〈몸의 윤리〉는 〈물질 2 물질하다가〉보다 단체의 이전 작품인데, 이번에 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재공연되며 창작진의 색깔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몸의 윤리〉는 미리 예약한 관객들에게 안내를 씌워 안내하며 시작한다. 도착한 장소에서 안내는 벗겨지지만, 완전히 검검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공연은 헤드셋을 쓰고,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따라 1시간 남짓 관객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귀에 흘러드는 목소리를 따라 목소리가 지시하는 대로 혹은 거부하며 상상하거나 움직인다. 만일 공연의 체험이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며 교감하는 것이라면, 〈몸의 윤리〉는 이것을 청각으로 대체한 것이다. 작품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참여한 관객들이 마지막에 웃을 벗은 채 타인의 맨살을 만지며 촉각으로 느끼게 된다.

관객 심리 조종의 방법적 측면은 이진엽과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일정 수준 무르익었다. 〈물질 2 물질하다가〉에서 관객들은 멀쩡하게 웃을 입을 채 물속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전작 〈물질 1〉에서 관객을 움직이게 만드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짚어 낸 결과이다. 〈물질 1〉은 장소를 넓게 이동하는 작품으로, 관객은 장소에 따라 구경꾼에서 참여자 그리고 배우의 도움닫기에 의해 능동적 행위자로 나아가며 역할을 바꾼다. 이것은 체험 속에서 공연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가게 되는 과정이기도하다. 이번의 〈물질 2 물질하다가〉는 한 장소에

서 공연되는 대신에, 전작에서 체득한 지점들을 이용해 관객을 끌어들이어 행동하도록 관객과 게임을 벌인다.

이렇게 관객이 참여하게 되며 이진엽 연출가와 코끼리들이 웃는다는의 작품은 작품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몸의 윤리〉는 형태가 없는 어둠과 소리의 공연이며, 〈물질 2 물질하다가〉는 지켜보는 이, 행위 하는 이, 또 다시 이를 지켜보는 이들로 관객의 여러 차원을 만들며 공연이 이뤄진다. 〈물질 2 물질하다가〉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이 '당신은 행동할 수 있나요?', '당신은 수용할 수 있나요?'를 질문하며, 난민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참여를 요구하는 공연의 형태가 '당신은 변화할 수 있나요?'라며, 사람들의 일상에 떨림과 파문을 일으킨다.

공공장소에서 웃을 벗거나, 웃을 입을 채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들은 막상 이뤄지고 나면,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행위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질서나 도덕 혹은 가치가 그렇게 절대불변의 견고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같다. 특히 참여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관객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객들에게 그러한 의미는 크게 다가온다. 공연은 시치미를 떼 체, 슬쩍 기존의 가치나 윤리에 어깃장을 놓는다. 이것은 이들의 작품이 갖는 어린아이 같은 세계관을 보여준다. 유치하거나 덜 성숙한 것이 아닌, 솔직하며 자유롭게 당당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태도로 작품은 사회의 견고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교감하고 행동하다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물질 2 물질하다가〉는 광화문 광장의 끝에서 공연됐다. 맞은편에는 경복궁이 자리해 저녁 무렵의 어둠을 부드럽게 끌어 앉는 것 같다. 시선은 어두운 하늘에서 초고층의 빌딩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그 사이의 한가운데 바닥의 넓은 광장이 자리한다. 현대적이며 건축적으로 깔끔한 건물들의 도시 풍경은 그 자체로 상당히 미적이며, 물리적으로 광장을 둘러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집중시키며 하나로 모으는 힘도 있다. 여기에 사람 키를 웃도는 기다란 수조 네 개가 설치돼 있다. 수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며, 곧이어 배우 네 명(성형미녀, 임선부, 회사원, 트랜스젠더)이 천천히 등장해 한 명씩 물에 들어간다. 작품은 물이 칠랑대는 수조에 들어 있는 배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며, 공연 공간 밖에 자리한 관객들에게 수조에 가까이 다가와 들여다보라 권한다.

창작진은 이 인물들이 요즘 현실 속의 비극적 주인공이라 말한다. 전작 〈물질 1〉은 햄릿 등의 고전 희곡의 비극적 주인공들을 되살렸는데, 〈물질 2 물질하다가〉에서 이것은 관객들이 심리를 가깝게 투영시킬 수 있는 존재들로 발전됐다. 물은 이들을 둘러싼 비극적 상황들이다. 뒤이어 들려오는 각자의 시적 독백들이 알려주듯이, 각자 개별적 비극의 이유들은 다르지만 바로 턱 밑까지 차오른 물의 존재처럼 개인을 휩싸는 극한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이 수조를 들여다보는 수조 밖의 관객들의 상황은 여기에서 얼마나 다를까. 이 작품의 중요한 점은 안온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는 현실의 관객들이 턱 밑까지 차오른 물의 수조 속의 기겁과 기이한 존재들을 보며 빨려 들어가듯 정서적으로 가깝게 동조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물질 2 물질하다가〉는 요 몇 달 사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 듯 한 분위기 속 공연보다, 상반기에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결 평화로워진 듯하지만, 여전히 약자에 대한 혐오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경직성, 날 선 분위기들은 오히려 커지는 듯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여전히 공연이 가지는 예리한 구석이 있다.

전작 〈몸의 윤리〉는 시각을 차단하고 청각을 확장해 공연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점이 있었다면, 〈물질 2 물질하다가〉는 이와 반대로 청각을 억제하고 시각적인 자극을 강렬하게 전달

하는 경향이 있다. 〈물질 2 물질하다가〉는 귀를 먹먹하게 하는 가라앉은 음악(지미 셰르)으로 공간 전체를 채워, 마치 물속에 들어있는 듯 답답하며 내리누르는 효과를 의도한다. 소리가 차단된 세상, 그것은 타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의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는 고독한 세상임에 틀림없다. 각자의 수조 속에서 각자의 비극적 상황에 빠져있는 인물들처럼 말이다. 화려한 색감의 조명은 몽환성을 키운다. 독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들은 천천히 일상적인 듯하며 혹은 수영하는 듯하며 물속에서 움직인다.

난민은 이 세계를 찾아온 이들이다. 피부색이 다르며 전통적인 복장의 배우들은 등장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으며, 조명과 음향으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환하게 일상적인 빛 아래에서 그들은 차분히 수조 속의 존재들을 바라본 후, 한 명씩 물속에 들어간다. 그들은 의지가 분명해보이며, 물속의 사람들과 삶과 삶을 부린 채 함께 수영한다.

사실 이 작품은 짧은 시간 안에 관객에게 확실한 변화를 겪게 하는 작품이다. 물은 작품을 시작할 때 개인의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적이며 암울한 조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가까이 물속에 뛰어드는 또 다른 존재들로 인해, 그것은 타개하고 부딪쳐야 할 상황으로 뒤바뀐다.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는 작품에서 바로 현장에 모인 관객들에게 권유되며, 그 자리에서 물속에 뛰어드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인해 행위가 확장된다.

물은 변함없이 턱밑까지 차올라 있지만, 수영과 그것을 함께 하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난민이 그러한 존재들의 기폭제가 된다는 점은 이 공연이 사회와 현실에 대해 갖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작품은 어두운 심연의 바닥까지 내려가 새로운 전환으로 나아간다.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다. 〈물질 2 물질하다가〉는 마지막에 모든 관객들에게 물속에서 멋지게 헤엄칠 수 있는 춤을 가르쳐 준다. 바닥의 심연에서 이후의 새로운 전환으로의 길이 같은 시간과 비슷한 정서를 교감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은 퍼포먼스의 체험의 순간이 갖는 중요한 점을 드러낸다. 상황의 전환은 같은 경험을 함께 한 바로 옆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SSAF2018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08

흔들리는 청춘, 붙잡는 예술 극단 몸꼴 <충동> @청계광장

정진세

독립예술웹진 인디안밥 편집인, 극단문 드라마작가

몸꼴의 작품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현대 도시인의 유령 같은 삶, 즉 부유하는 존재의 표상이라.

그동안 리어카 위에서, 혹은 대형 타이어 위에서, 그리고 관 속에서 그러한 캐릭터가 출몰했다면, 이번엔 흔들리는 사다리-반구 위에서 고통 받는 시대의 청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현과 재욱이라는 두 배우의 현존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곧 시대를 상징하는 청춘의 얼굴이며, 동시에 그것을 예술적으로 수행하는 배우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더욱 진실한 것으로 느껴졌다. 어떤 분장도 꾸밈도 없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거기에 '표정'을 더함으로써, 관객들은 보다 친근하고 정직한 거리예술을 만날 수 있었다. 요컨대, 삶이 곧 예술임을 믿고, 흔들리는 삶으로부터 흔들리는 예술을 구현해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동시대 거리예술의 이야기가 온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1.

몸뚱의 배우, 제현과 재욱. 몸뚱의 장치, 사다리와 철제 반구 (半球). 서로의 탐색전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재욱은 사다리를 쓰다듬고 이내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빙글빙글 돈다. 쫓아오는 사다리에 제현은 도망가고, 관객들도 머리 위로 날아드는 사다리를 피한다. 모두 함께 사다리의 정체를 파악하며 곁들이는 중. 이윽고 제현은 재욱의 어깨 위 - 걸쳐진 사다리 - 에 오른다.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의미심장한 장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현을 지탱하는 재욱의 이야기 혹은 재욱의 존재를 딛고 선 제현의 이야기인 셈이다.

사다리 다음은 반구. '무대 맛보기' 는 계속된다. 지름 일 미터 남짓의 '흔들무대' 에서 제현과 재욱은 균형을 잡아 나간다. 이어지는 포옹. 이들은 서로를 모형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것일까.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 전까지, 재욱과 제현은 관객과 벽돌 주고받기 놀이를 한다. 이 여정에 관객 또한 동승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듯이 객석에서 건네준 벽돌은 이내 반구를 고정시키는 고임돌로 기능한다, 반구와 반구 사이에 '다리' 가 놓이자, 벽돌을 머리위에 얹고 섬 사이를 횡단하는 이들. 음악이 비장해짐에 따라 배우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다. 사다리는 수직으로 곧추 세워져 반구와 도킹하고, 곧이어 총동을 위한 시동을 건다. 무대는 의문의 여지없이 배의 꼴을 하고 있다. 허나 돛대는 있되 펼칠 막이 없어 부유하는 배다. 그리하여 재욱과 제현은 그 표류하는 배 위에 탄 난민, 보트피플이 된다. 이제 겨우 배(사다리)가 생겨 세상이라는 바다(하늘)를 향해 나서는 청춘들의 행보가 초장부터 험난하다.

사다리에 오르는 제현. 그가 한발을 내딛을 때 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사다리는 점점 기울어진다. 반구의 무대는 서로 밀쳐내고 끌어당기고, 진동하는 추처럼 운동한다. 기울어진 사다리가 객석 쪽으로 향하자, 예기치 못한 각도에서 돌진하는 배우에게 관객들은 환성을 지른다. 철제 사다리가 자신을 뒹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안도감이 교차한다. 힘이 더해질수록 가속도와 반작용으로 인해 진동은 심해지고, 관객들은 사다리의 아찔한 속도감을 고스란히 체현하게 된다.

2.

극단 몸뚱에게 '사다리'는 처음이 아니다. 전작 <오르페우스>에서 사다리가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상징적 오브제로 사용되었다면, 이번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층이동을 위한 상징적인 수단으로도 여겨졌다. '총동' 또한 마찬가지로. 전작 <불량 총동>에서 총동은 흔들리는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퇴행의 심적 근거였다면, 이번에는 흔들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한 도전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재욱과 제현의 일상적인 복장에서 드러나듯, 두 캐릭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청년들이 연상된다. 그러하니 총동 또한 그들의 것이리라. 밑바닥을 벗어나고자 하는 총동, 늘 올려 보던 세계를 바꿔 보고픈 총동, 더 멀리 보고픈 총동. 따라서 사다리는 이들의 욕망과 자연스럽게 조우한 오브제인 셈이다. 그러나 공연이 보여주는 것은 그 곳에 꼼짝없이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사다리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할 때, 그 사이 공간에 잡혀있는 젊은이의 모습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들에겐 이 모든 경험이 처음이기에. 그들은 사다리 탑승 이후를 예측할 수 없었을 테니. 지면과 천장에 자기들 곳을 모르고 부유하는 사다리의 모습을 통해 지금, 여기의 청춘들의 모습은 불안하게,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총동은 본래 종(種)의 생존에 기여하는 본능적인 특성이다. 누군가의 총동이 실패에 그칠지라도, 그러한 사례를 거울로 삼아 인류는 발전해왔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예술가적 기질 또한 총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총동은 의지(에)의 산물인 것이고, 그리하여 이들의 총동은 불량총동이 아니라 '선량총동' 이 된다. 이는 삶을 더욱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이며, 나를 더욱 나답게 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시대 청년들에게 의지나 총동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총동 이후에 해방 보다는 후회나 자책감이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아서일까. '현재타임'을 항상 유지해야 자기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일까. 총동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일까. 많은 행위를 실상이 아닌 가상으로 먼저 익혀서일까.

3.

대체로 거리극은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분법적인 의미 구성을 두는 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선 그러한 효과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는다. 등장하는 두 인물, 제현과 재욱은 서로를 활용하며 각자의 기능에 충실할 뿐. 대립되는 관계를 통해 성격을 획득하고 그에 의거한 서사를 구사하는 대신, 서로를 향해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이어나간다. 이들에게 사다리 게임의 승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셈이다.

지금 청년들이 타자를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긍정하는 전략에 달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몸뚱의 배우 제현과 재욱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강요가 되지 않도록, 친근하고 섬세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런 점에서 흔들리는 인생 위에서 곡예를 펼치는 '나' 를 위해, 사다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 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었다. 극한으로 경쟁하거나 차별하는 대신,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또 다른 동료 가 있었다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빼어난 신체술도 혹은 사다리-반구의 장치술도 아닌, 두 배우의 '표정' 이 눈에 띄었다. 이를테면, 제현은 뭔가에 몰입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명랑함과 건강함은 관객들로 하여금 선량총동에 매료되게끔 한다. 미세하게 변주되는 그 미소는, 그가 허공의 사다리 위에서 관객 저 너머의 풍경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멋지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궁금해진다. 시종일관 우리에게 눈길을 주던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높은 곳의 공기는 아래와 다를까. 환희에 가득 찬 그의 얼굴.

그에 비해 신재욱의 표정은 의젓하다. 눈치가 있다. 상대를 가늠한 눈길로 바라본다. 마주한 이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어른의 얼굴이기도 하다. 상대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는 배려의 미소다. 그리하여 재욱과 제현의 미소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가 된다. '괜찮아, 내가 보고 있을게' 혹은 '더 해도 괜찮겠지?' 라는 무언의 대사로 우리는 몸뚱의 사다리가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흔들리는 존재와 흔들리는 존재와 붙잡아주는 존재가 역할을 달리하면서 서로를 보고 있다. 먼저 올라갈 이를 위해, 나중에 올라올 이를 위해,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4.

재욱의 허공 퍼포먼스가 몇 번을 더해지고 난 뒤, 제현은 작은 호스를 반구의 구멍에 넣고 소리를 질렀다. 배가 고통 소리를 내듯, 사방에 퍼지는 음성. 기압에 의해 이내 구멍을 따라 철철 뿜어져 나오는 물들. 그 물은 바닥을 적시며 완전히 빠져나갔다. 더 이상 균형 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구는 사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지면으로 털썩 내려앉는다. 배는 침수되고 남겨진 이들은 난파선에서 빠져나와야만 했다.

모든 것이 좌절로 돌아간 순간. 애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공연은 끝이 났다. 제 자리를 찾아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높은 곳을 찾아 허우적대던 우리 모습을 반성케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총동만큼이나, 어디론가 떠나려갈 때의 담담함 또한 평소에 쉽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지라, 그 시간들이 꽤 소중하게 느껴졌다.

몸뚱의 작품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현대 도시인의 유형 같은 삶, 즉 부유하는 존재의 표상이라. 그동안 리어가 위에서, 혹은 대형 타이어 위에서, 그리고 관 속에서 그러한 캐릭터가 출몰했었다면, 이번엔 흔들리는 사다리-반구 위에서 고통 받는 시대의 청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현과 재욱이라는 두 배우의 현존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곧 시대를 상징하는 청춘의 얼굴이며, 동시에 그것을 예술적으로 수행하는 배우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더욱 진실한 것으로 느껴졌다. 어떤 분장도 꾸밈도 없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거기에 '표정'을 더함으로써, 관객들은 보다 친근하고 정직한 거리예술을 만날 수 있었다. 요컨대, 삶이 곧 예술임을 믿고, 흔들리는 삶으로부터 흔들리는 예술을 구현해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동시대 거리예술의 이야기가 온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SSAF2018

〈충동〉 극단 몸결



©SSAF2018

〈충동〉 극단 몸결



09

오래된 축제와 함께 나이 들 권리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채민

축제기획자, 드라마터그와 공연비평가로 활동 중이다.



〈완벽한 산책〉이 와트

북적이는 10월의 광화문,
비교적 한적한 서울시청의 뒷 길을 배낭 맨 남자가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는 여느 행인들과는 다른 리듬으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구부정한 어깨, 무릎이 서로 맞닿을 듯한 걸음걸이. 목적지 없이 움직이는 그의 주변으로 서서히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는 유리벽에 바싹 붙어서 카페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핸드폰 가게를 들락날락 거리기도 한다. 그러다 노천에 앉아 있는 중년의 여성 앞에 마주 앉는다. 어색한 순간에 중년의 여성은 미소를 건넨다. 1 와트(1 Watt)의 〈완벽한 산책〉이다.

외로운 광대의 <완벽한 산책>

벨기에 출신의 광대 피에르 필라트(Pierre Pilatte)는 그녀에게 미소로 화답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곧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향해 움직인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걸음 더 바쁜 걸음으로 앞지르기도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한다. 급기야는 자신에게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남자를 안아 올린다. 낯선 사람과 하기에는 꽤 오랜, 이상한 포옹이다. 피에르는 자신이 들어 올렸던 남자의 가방을 뒤진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인중에도 없는 듯, 호기심을 채운 그는 다음 관심거리를 향해 움직인다.

피에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불쑥 개인의 영역을 침범한다. 그의 돌발적인 행동은 바라보는 사람들을 긴장시킨다. 우리는 낯선 사람의 침범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피에르는 <완벽한 산책>을 통해 실험을 계속한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등장한 이 존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 피에르는 누군가의 친절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언가를 더 요구하거나,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돌아선다. <완벽한 산책>은 타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경계하게 만든다.

공연 내내 길동이(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 한 명이 공연정보가 적힌 배낭형 배너를 메고 피에르를 따라다닌다. 배낭형 배너는 이동형 공연을 찾아오는 관객을 위한 표식이자, 아마도 공연자에게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신 피에르는 낯선 자(Stranger)의 맥락을 잃어버린다.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선택은 새로운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완벽한 산책>을 완성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에피소드를 소멸시키고, 그저 한 명의 외로운 광대만 남긴다.

도시 속 동화 <종이 비행기>

우리는 청계광장 한쪽에 놓인 작은 컨테이너 안으로 줄을 지어 들어갔다. 작은 의자에 차곡차곡 앉으니 서로의 어깨가 닿는 게 느껴진다. 콜렉티프 라 메앙드르(Collectif La Meandre)의 연출가이자 음악가인 아서(Arthur)의 서정적인 연주와 함께 아가지기한 스크린에 애니메이션이 맺힌다. 스크린은 벽에 붙은 작은 액자들처럼 이곳저곳에 분할되어 있다. 초현실적이고 황량한 풍경을 배경삼아 한 여자가 길을 떠난다. 스케치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의 쓸쓸한 정경에 환상을 붙여 넣는 것은 일상적인, 너무나 일상적인 소품들의 소음이다.

<종이 비행기>는 엉뚱하고 감성적인 미국의 친구 방에 초대 받은 느낌을 준다.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그곳에 웅기쭉기 붙어 앉아 그의 세계를 구경하는 동안 우리는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온다. 그리고 위로 받는다. 콜렉티프 라 메앙드르의 컨테이너는 도시의 틈새가 된다. 관객은 좁은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숨을 고르고 다시 바깥으로 나간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꺾기에는 같은 멜로디가 맴돈다. 도시 속 동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우리 모두 같은 바다 속으로 <물질 2 물질하다가>

**우리는 섬처럼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바다에 몸을 담고 있다.**

<물질 2 물질하다가>의 극중 대사이며, 작품의 이미지와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구절이다. 나는 저 구절에 반해 2018년 거리예술마켓의 기획프로그램이었던 '거리예술전(전시)에서

코끼리들이 웃는다(이하 '코웃다')의 <물질 2 물질하다가>를 소개했다. 그때 썼던 구절을 일부 이곳에 가져와 본다.

연출 이진엽은 작품에서 함께 작업한 난민의 삶을 전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대신 거대한 수조 안에 익명의 '우리'를 전시한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그들이 수조 안을 응시한다. 낯선 존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도리어 나를 향해 돌려 놓는다. 나의 일상을 옥죄는 것은 낯선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편견'이다. '나'를 바라보던 그들은 수조 속으로 들어와 허우적대는 나를 물 위로 밀어 올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의 경계를 흔들어 놓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를 배제한 '우리'인가. <물질2 물질하다가>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기준'이 허구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 '거리예술전' 프로그램 본문 중

참고로 전시는 실패했다. 어쩌면 이 글은 왜 전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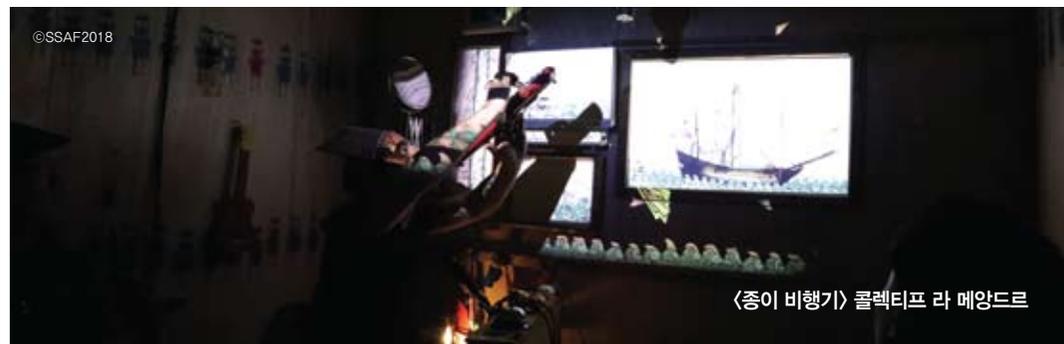
박물관에 있을 법한 일자형 유리관 네 개가 광화문 북측광장에 일자로 놓여있다. 유리관은 물로 차 있다. 까치발을 들어도 턱 끝까지 차오르는 물 때문에 네 명의 배우는 줄곧 일시적으로 숨을 참거나, 할떡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직장인', '성소수자', '임산부', '미혼여성'이다. 코웃다는 '우리의 삶을 전시하겠다.'고 전면으로 선언한다. 섬처럼 떨어져서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유리관 안의 우리'에게 '그들'이 다가온다. 그들은 코웃다가 '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만난 난민들이다. 지켜보던 그들은 우리가 허우적대는 세계로 뛰어든다. 우리와 함께 흠뻑 젖기를 선택한다. 코웃다는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나의 영역을 넓히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도리어 그 편견은 나의 숨통을 옥죄는다. (게다가 '나'와 '그

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또 얼마나 빈곤하고 작위적인가.) 난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들을 달고 물 밖으로 나온 배우들이 관객에게 다가온다. '가자고. '함께 가서 저 사람을 만나자고. 서늘한 계절, 나의 곁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이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부둥켜안는 장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고 준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 때 주저 않고 따라나서는 사람들. 관객은 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다. 한편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차도르를 입은 여자가 공연 내내 그리던 섬을 관객과 함께 지워나간다.

우리는 같은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극복하는 춤을 함께 춘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양손을 모아 천천히 머리위로 올리고 모은 손을 풀어 한 바퀴를 돈다. 서서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든다. 공연을 보던 많은 사람들과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만들어 낸 물결은 어디로 가는가. 나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같은 바다 안에서... 또 생각한다. '타인과의 만남'이 없는 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거리예술축제의 내년을 기약하며

매해 축제가 거듭되며 지나가는 길에 보는 사람보다,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만의 관람 동선을 짜고, 리뷰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공연을 추천한다. 거리예술의 관객은 더 이상 길바닥에 앉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북적이는 도시에서 쉬어갈 곳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예술축제를 즐기는 요령이 생겼다. 지켜내고 싶다. 매년 찾아오는 이 약속, 축제와 함께 나이 들어갈 권리를.



<종이 비행기> 콜렉티프 라 메앙드르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SSAF2018



〈완벽한 산책〉 1 와트



01

또 다른 시선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전문가의 시선

01

소재의 가공으로 바라본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국내 거리극들



〈길_Passage〉 예술불꽃 회랑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뿐이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어떤 소재가 있고, 그 소재에서 뭔가 매력을 발견한 예술가가 그것을 가공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글은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공연한 국내공연 중 거리극을 대상으로 소재가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임수택

수원연극축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예술감독

<길_Passage>

이동형 거리극은 고정형에 비해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가 아주 어렵다. 특히 커다란 도로를 길게 이동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며 수많은 인파 때문에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기도 불가능하다. 불꽃 전문공연단인 예술불꽃 화랑은 국내에서 이러한 어려운 난제에 도전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이다. 〈길_Passage〉은 프랑스의 카르나비에와 함께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번에는 프랑스 참가자들을 빼고 한국의 배우로만 공연하였다. 공연단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축제안내책자는 이 작품을 '삶과 죽음의 공존'으로 소개하였다. 실로 엄청난 소재다. 삶에서 극히 작은 일부도 파악하기 어렵는데, 절대 알 수 없는 죽음까지 담으려고 시도하다니! 세종대로는 많은 인파들로 붐볐다. 그들과 함께 이동해가면서 공연을 관람해야 했기 때문에 개개 장면을 세세하게 관찰하기 어려웠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필자는 삶과 죽음의 공존은 차치하고 공연 내내 삶도 죽음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영혼을 전송하는 것 같은 긴 외침소리에서만 죽음을 추측할 수 있었을 뿐이다. 게다가 극단은 모든 장면의 전개를 불꽃에만 의존하였다. 배우의 움직임은 아주 약해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 불꽃의 모양이 계속 다양해

지고 있으며, 극단이 불꽃을 쏘는 다양한 방법도 개발해나가는 했으나 불꽃만으로 우리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닐까? 그 결과 이 공연은 엄청난 주제와 빈약한 재료에 함몰된 것처럼 보인다. 관객들은 공연 내내 환호했다. 그러나 이는 각 장면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둘의 공존에 탄복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불꽃 자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길_Passage〉 예술불꽃 회랑

<빛의 기억>

우리는 삶이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해답을 구한다. 예술도 그 중 하나다. 예술은 일종의 삶의 해석이다. 그런데 많은 예술작품들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커녕 우리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간다. 빛의 기억. 빛이 기억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빛을 기억한다는 것인가? 빛이라고 높은 하늘에 띄워 올린 초승달(필자에게는 종이배처럼 보였다)의 노란 빛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얀 의상을 걸친 여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듯한 움직임을 펼친 후 그 아래 무대에 있던 한복 입은 여자가 전통춤의 몸짓을 하면서 줄을 타고 초승달로 올라가다가 바로 아래에서 멈춘다. 정확히 얘기하면 초승달에 매달려 멀리 사라진다. 공연단은 이 간단한 이야기에 빛의 기억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종이배로 착각한 필자는 노란색과 겹쳐 세월호와 그 아이들 그리고 휴녀 심청이 생각났다. 이 둘의 이야기와 함께 이 두 집단의 움직임과 의상도 하나로 묶여지지 않았으며, 빛의 기억이라는 제목은 아예 잊고 있었다. 거창한 구호에 빈약한 형상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

<충동>

이 작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그러면서 규모는 오히려 작아졌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이 공연의 시발점은 물 폭탄을 맞으면서도 무리하게 차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데모대 장면이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작품의 창작자는 막으려고 하니까 더 하려고 하는 반발성 충동을 발견한 것이다. 작품은 쇠로 된 목직판 반구가 굳건히 땅에 서있고, 두 배우가 사다리까

지 동원하여 열심히 오르고 내리면서 반구를 움직이게 한다는 내용이다. 관객은 곡예에 가까운 두 배우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감탄을 보냈다. 마침내 배우 하나가 (무슨 '충동'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구의 뚜껑을 열자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고, 그때까지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쇠로 된 반구가 힘없이 옆으로 쓰러진다. 육중한 쇠덩이 반구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 사실 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란다. 육중해 보이는 반구는 사실 속이 빈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창작자는 데모대의 모습에서 반발하려는 충동을 발견하고 이를 가공하여 우리의 내부에 숨어있는 충동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런데 관객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반발적 '충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뭐 크게 보면 놀이도 충동인가?

<빨리빨리 서울>

서울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바쁜 곳이다. 이것은 사실 외국의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네 명의 배우들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직장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때로는 신체극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무용 같기도 한 그들의 움직임은 빨리빨리 서두르다기보다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굴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젊은 직장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빨리빨리'라는 소재는 이미 8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회자된 아주 오래된 것이며 오늘날 직장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배우들의 움직임 또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다는 점에서 소재와 형상화 모두 다소 진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질 2 물질하다가〉 코끼리들이 웃는다



〈아담스 미스〉 우주마인드프로젝트



〈고기, 돼지〉 바람결퍼니

<물질 2 물질하다가>

젊은 처녀, 임산부, 성소수자, 직장인,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물을 거의 가득 채운 투명한 통 네 개 속에서 각자 홀로 잠겨있다. 물속에서는 물질을 해야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물질은 수영장에서 하듯 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여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몸을 어루만지며, 임산부는 자꾸 쏟아지는 과일을 연신 가방에 담고 성소수자인 듯한 사내는 다리의 털을 깎으며, 직장인은 비닐봉지와 사투를 벌인다. 이것이 이들이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물질이다. 창작자는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소재로 다루면서 그들의 은폐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다. 단 네 명의 인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순 없지만 이들은 다시금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 어떤 교류도 없이 홀로 자기만의 물질을 하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그러다 외국인 4명이 나타나 물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들마저 물속에 들어가자 높이 차 오르는 물에 얼굴을 높이 쳐들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또 대화를 나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외국인과 외국문화는 우리의 고립을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인가? 마지막에는 물통에서 나온 배우들이 관객을 부추겨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거의 강제로 물통 속에 들어간 관객은 같은 물통 속에 있는 외국인과 눈길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즐거워하기도 한다. 관객이 웃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물통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버려야 얻는 것이다. 처음 물통 속 인물들의 설정과 외국인의 개입이 약간은 치기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연은 발견한 소재를 극단적으로 형상화해냄으로써 호기심과 자각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확인한 불편한 진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즐거운 잔치로 끝맺음하였다.

<아담스 미스>

우주마인드프로젝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말장난 하듯 제목을 변형시켜 현대인의 고달픔을 고발한 〈잡온론〉으로 일약 거리극계의 스타로 떠오른 단체다. 그 단체가 이번에는 자본론과 정반대 입장을 가진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를 변형시킨 〈아담스 미스〉를 들고 나왔다. 이 작품은 "국부론"을 비판하는 한편, '아담의 잘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목을 통해 남녀불평

등도 고발한다. 유쾌하고 재치가 있으며 긴장감 있는 템포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 처음 공연하는 공간이었을 텐데도 마치 그 공간을 위해 작품을 만든 것처럼 훌륭하게 공간을 활용하였다. 다만 이미 위에서 언급한 국부론의 국가주의와 남녀불평 등이라는 두 소재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 작품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아울러 작품에서 이루어지는 풍자와 비판이 다소 텔레비전의 익살(gag)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아 일반 관객에게는 익숙했겠지만, 예술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충분히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고기, 돼지>

제목은 돼지가 동물이 아니라 고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도 동물이 아니라 단순히 고기로서 취급되는 돼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장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돼지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여 전달한다. 그 후 돼지로 선정된 관객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역할을 하며, 나머지 관객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마지막 정착지는 물론 수많은 상품들과 함께 진열되어 판매되는 슈퍼마켓이다. 그리고 마치 예뻐보이듯 돼지를 형상화한 동글고 커다란 풍선 10여 개를 청계천 다리 위에서 아래로 내던진다. 아직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돼지들이 생매장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돼지가 이렇게 돼지 취급을 받지 못하다니!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경험하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 공연은 기록(documentary)인가 아니면 예술인가? 오늘날 일부 미술은 단순히 기록을 모아 전시하고 나머지는 관객들에게 스스로 상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상상을 통해 스스로 뭘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전적으로 말해 기록이 사실의 나열이라면 예술은 사실의 가공 아닌가? 이 가공을 통해 예술은 사실의 개별적인 사례를 보편적인 의미로 변형시킨다. 물론 이 둘의 경계를 두부 모 자르듯이 분명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다.

02

Reflections on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SSAF)



©SSAF2018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Maggie Clarke

Director, XTRAX

XTRAX is a Development Agency based in the UK, specialising in supporting ambitious projects for public spaces, and promoting incredible work internationally. XTRAX is a founder member and manager of Without Walls, a consortium of festivals that commission and tour new outdoor projects.

I am privileged to visit many street arts festivals in the course of my work – mostly in Europe, but from time to time further afield – and it is always fascinating to see how outdoor festivals translate to other parts of the world. It is a concept that audiences everywhere seem to understand; the day to day use of a place is temporarily disrupted or suspended to enable something special to happen, and the people who are there, whether they have happened on the event by chance, or planned to attend, for that moment the workers, the shoppers, the tourists, the drunks,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transform into an audience, and share something together.

And this is a festival that makes the audience the star of the show. The SSAF has explored many different ways of making the festival relevant and important to the people whose lives it gently and creatively disrupts – by taking the festival to them in their communities, by telling the stories of the city and its citizens, by creating opportunities to use the festival as a platform for the people of the city to talk ab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 and by ensuring that established and emerging artists from across Seoul and beyond have an opportunity to showcase their work to an audience of professional festival

practitioners from around the world, against the iconic background of the South Korean capital.

In October 2018 I arrived in time for the opening event, titled Unity in Differences – the underpinning theme of the festival. With over 470 musicians, dancers, actors and aerialists including professional artists, students and local participants, this was more of an opening ceremony than a show. Featuring a cast of hundreds of local dancers, actors and drummers, an aerial sequence from Creative Dandi (an aerial company whose work I have now seen several times at this festival) and the thrilling set piece <Human Net> from the Catalan company La Fura Dels Bau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artists, this was a huge out pouring of energy and creativity, out side the City Hall on Seoul Plaza. The sheer numbers of people involved was extraordinary, and the images of a community’s survival through social division and disaster, as they follow their hopes and dreams, told a universal story.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the engagement of

local artists is threaded throughout the evening and indeed the rest of the festival programme. Later that night, I saw Polish company KTO present <Zapach Czasu>, featuring a cast of local performers alongside the core company – and the following day we had a chance to reflect further on this topic, in a seminar organised for professionals from the Street Arts world, exploring further the theme of citizen engagement.

This is familiar territory for me, as audience engagement is a huge area of interest in the UK, and a part of my work includes supporting audience development projects, designed to encourage people who don’t normally attend other kinds of arts activity to attend our festivals; sometime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re part of this. So for this to be so embedded in the programme is another point of connection for my work with that of the SSAF.

With speakers from France, Spain, Belgium, Portugal UK, Korea the seminar explored different examples of how festivals around the world value



〈시간의 향기〉극단KTO

the involvement of their audiences in the creation and/or presentation of the work – including some powerful testimonies from Korean participants about the impact that being involved in such work had on them. An interesting reflection for me from this seminar, was that many of the speakers referenced the same few shows as good examples of projects that facilitated local artist or audience participation - including the <Human Net> that featured in the opening night. This led me to speculate about whether there is a demand for more contemporary shows of this scale that fulfil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On the subsequent days my priority was to see as much as I could of the huge programme, specifically to see as many of the Korean artists as possible. My carefully planned itinerary would have allowed me to see almost all of the Korean work – but unfortunately a typhoon meant that most of the shows on Friday were cancelled. In Britain we are accustomed to dealing with bad weather, so I felt great empathy for the artists and organisers – especially the brave dancers from Project WAE

who delivered a memorable and captivating extract of <Quickly Quickly Seoul> in the pouring rain to a small but determined group of audience members – including myself and my colleague, armed in our waterproofs. Thankfully the fine weather and busy programme resumed by Saturday and we resumed the rigorous schedule.

In the course of the 3 days I saw 26 shows, of which 19 were by Korean artists – and as a fourth time visitor to the festival there were some companies that I have seen several times before; it is always interesting to see a show in the context of an artist or company’s body of work – to follow influences and themes, styles and preoccupations – and to see developments and evolutions.

Once again I was struck by the quality of the dance in the programme. I loved the performance of <Quickly Quickly Seoul> even more in dry weather, where I could appreciate the finesse with which the performers, dressed in the uniform of the office workers of the city, drew the audience through multiple locations, using the backdrop of the



〈다크니스 폼바〉모던테이블



business district to great effect. It builds on the considerable experience of Project WAE, including their collaborations with European companies, and having seen their work in previous editions, I can see that SSAF has played a part in giving a profile to this exciting company. This highly polished piece of perambulating dance, inspired by the fast-paced life of modern Seoulites, deserves to tour widely, in Europe and beyond.

Another dance highlight was the opportunity to see Modern Table present an outdoor version of their celebrated work <Darkness Poomba>. I saw the indoor version of this piece in London in 2016, and on Sunday evening, on the Sejong-daero, a busy street of traffic closed especially for the festival, it was an explosive performance. Artistic Director Jae Duk Kim is a multi talented choreographer, dancer, composer and singer and this show is rightly touring the world; contemporary dance of the highest quality combines with distinctively Korean live music and the effect is exhilarating. I have loved all the of the shows that I have seen in the last 4 years from Modern Table and I was

proud to have brought the show <Men of Steel> as part of an exchange programme with the UK in 2017. It is interesting that SSAF can present work such as this, that would normally command a hefty ticket price if presented in a venue, in the centre of Seoul for audiences to see for free. This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introduce new audiences to contemporary dance, and from the screams of delight from the crowd, it would appear that they are hungry for more.

There were some other familiar faces amongst the dancers too. I had enjoyed the work of Libre Joven very much when I first saw them in 2015, particularly their three hander <Connection Link>, and I have followed the development of this young and talented company since then. Their new piece, <Resistance>, explores themes of rebellion, compromise and societal restrictions - and the performance on Saturday afternoon was memorable, not least because it was accompanied by another piece of un-programmed street choreography; a loud and highly charged demonstration from right wing



protesters, demanding the release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recently sentenced to 25 years imprisonment for corruption. Most of these protestors are over 60 and many of them carry the South Korea and US Flags,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alliance with the USA and their opposition to links with North Korea. They make their noisy presence felt in Seoul on a regular basis, and have done so since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 that led to the removal of then President Park. With their loudspeakers, drums, banners and slogans, as they marched around Gwanghwamun Square this parade of the older generation offered a striking backdrop to the youthful cry of rebellion and hope offered by Libre Joven. The Korean artists and the Seoulites are used to this kind of intervention, and carry on as normal; to an outsider, this is a glimpse of life in one of the world's most volatile cities, and a tiny insight into the realities of what the festival organisers must have to navigate in programming work in these politically symbolic locations.

There are many other excellent Korean dance

performances in the programme though unfortunately I didn't manage to see them all, partly because the typhoon disrupted my carefully prepared schedule. I enjoyed the exquisitely precise solo <Canon of Proportions> by Jiyoung Yoo, and I hope that I will have another opportunity to see some of the pieces I missed, including the new work from No-W-Here Dance Company, whose previous performances I have really enjoyed, as well as the new collaboration from Gamblerz Crew with a contemporary choreographer.

There is more strikingly original work to see beyond the dance programme. One of the most distinctive was from Elephant's Laugh, whose <MULJIL 2> featured four performers submerged in large transparent tanks of water, whilst the performers outside of the tanks, engaged in an intriguing ritual, highlight their separation from the characters within. The piece concludes with an extraordinary moment of participation, as four volunteers are invited to step forward, and then gently led in to the tanks of water to join the submerged performers, fully clothed. This pushes the expectation of

audience participation beyond anything I have seen before – and whilst at least one of the people who stepped forward retreated when she saw what was expected of her, I am amazed that the others rose to the challenge, and followed the artists into the tanks. I had assumed that these were not really volunteers, but friends or collaborators of the artists – but I was told that it was real, and if so, the willingness of Korean audiences to enter into the spirit of the festival so fully is inspiring and extraordinary. I wonder if the audience at home would be so obliging – but I will see for myself, as this show will come to the UK in 2019.

Festival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supporting artists to develop their creative practice, and it is interesting to see SSAF taking on this role in a number of ways. In 2017 I had seen a promising new circus performance from the company BONGnJOULE in the “official” programme, and so it was interesting to see this same piece presented once again. In the course of this last year, <The Road To Heaven>, has evolved in to a mesmerising piece of circus theatre, with live traditional Korean music accompanying an accomplished Chinese Pole performance. It is already in demand from many European festival promoters.

Another company I was delighted to see again is Theatre Momggol, whose moving and provocative work I have followed for several years. Momggol’s <The Grave Far Away>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shows I saw in the 2016 festival, and I was curious to see this new work, <Impulse>, an evolution of an earlier piece that I had seen in 2015. <Impulse> uses a cleverly designed structure of a ladder fixed onto a semispherical base, that rocks around the 360 degree axis; two performers build it, then rotate, rock, rise and fall on this gently moving

structure, as they creating thrilling moments of flying and falling that had the audience shrieking in delight. The athletic performers found moments of beauty, humour and drama in this playful and well executed performance. It is a smaller scale version of the earlier piece, and once again it is interesting to see the festival taking a part in the artistic development of a project by supporting the evolution of a show over several years.

There are many other great Korean performances in this festival and so many include significant audience participation; in Compagnie Galmae’s <C’est Pas La, C’est Pas La>, an intricate sculpture constructed of string, catches the light, creating a beautiful installation. Sounds of an unseen demonstration resonate through the air creating an unsettling atmosphere, and the audience are invited to enter the labyrinth, to unwind the string, working together to deconstruct the sculpture. After the frenzy of activity, the set is reduced to giant balls of string, which are set a light, and Gwanghwamun Square is empty again in the darkness. It is strangely moving, particularly in this place, a site in which many protests have taken place – and it is another performance that could not happen without the interaction of the audience.

I can see that in presenting successful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alongside established and emerging local talent, SSAF provides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outdoor work by Korean artists.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artistic development offer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ompanies, there are many emerging artists in the official and “off” programme. I imagine that the students from the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re circus training programmes, will be inspired by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work alongside pieces such as

<Filage> from the Belgian company Sur Mesure, or <Block> from Nofit State & Motionhouse(UK) – and there are plenty of other opportunities for creative inspiration in a programme that boasts over 40 shows, including 16 international companies.

This imaginatively curated festival is one of many elements that is contributing to the rapid emergence of the Korean Street Arts scene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impressive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re, which I have visited several times, has to be the most impressive creation centre building that I have seen anywhere in the world, offering development spaces, workshops, studios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street arts and circus practitioners, as well as invited residencies from international artists. As well as this incredible resource, the Korean Street Arts Assoc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together professionals from the sector, and promoting the work of Korean street artist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long with a number of significant festivals, this infrastructure ensures the grow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Korean street arts sector.

Finally I see the other large signature piece on my final evening of the festival. KompleX Kapharnaüm’s <Vous avez un nouveau message> is a large scale sound and visual piece created in association with local students, artists and members of the public, designed to give a voice to the concerns, hopes and dreams of local people, and to give them the high level of visibility that goes with placing these images in the Seoul Plaza, writ large on the walls of the City Library. From the faces and voices of local people, we hear youthful messages of hope and aspiration, some of them predictable, some profound. I am especially struck by the middle aged woman who talks about the Sewol Ferry that

sank in 2014, killing 304 people, most of them children. There is a constant memorial to those who died in this disaster in the centre of Seoul in Gwanghwamun Square, and the slow reaction of the then government to the tragedy was arguably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downfall of the now imprisoned former President. But although I had seen performances at former editions of the SSAF that seemed to allude to this terrible event, the artists who created the work were reluctant to discuss it, no doubt aware of the then rumoured, now widely reported, blacklist of artists that was held by the former government. So to hear this being talked about openly at the 2018 festival, projected onto City Library, seemed like a great step forward for the freedom of artists, and the right to self expression. It is a beautiful and moving installation, once again placing the citizens centre stage.

The commitment to the audience was woven into the festival, and this festival served its audiences of citizens, artists and professional guests in many ways. As a visitor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from a country that is deeply divided over the referendum that saw the UK narrowly vote to leave the European Union, the theme of Unity in Difference is a potent one. I know I am far away from England when I am immersed in the beguiling and bewildering sights, sounds and smells of Seoul, but I am at home in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 and I hope to return again soon.

I would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the visionary Director of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Mr Jongseok Kim, and to the talented Producer of the festival Ms Rhanhee Lee.

02

서울거리예술축제를 돌아보며

번역 _ 이문희



©SSAF2018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메기 클라크

XTRAX 감독

XTRAX는 영국에 기반을 둔 예술진흥 에이전시이며, 공공 공간에 대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멋진 작품들을 국제적으로 프로모션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XTRAX는 새로운 거리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순회하는 축제 컨소시엄인 Without Walls의 창립멤버이자 매니저이다.

나는 일 관계로 많은-대부분은 유럽의, 가끔씩 더 먼 곳의- 거리예술축제들을 방문하는 호사를 누렸는데, 다른 곳에서 야외 축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는 것은 항상 나를 매료시킨다. 야외축제의 개념은 전 세계의 관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장소의 일상적 사용법은 좀더 특별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기되거나 유보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건 계획적으로 참석했건, 그 순간에는 노동자도 상인도 관광객도 취객도 어린이도 부모도, 모두 관객이 되고 무언가를 공유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객을 공연의 스타로 만드는 축제가 있다. 서울거리예술축제(SSAF)는 상냥하고도 창조적으로 관객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며 이들에게 중요하고 의미미한 축제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을 실험해왔다. 축제를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여놓고, 도시와 도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들이 직접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또한 서울과 전국의 중견 및 신인 예술가들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전세계에서 모인 축제 전문가들을 관객 삼아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준다.

2018년 10월, 나는 축제의 기본 주제이기도 한 "따로, 또 같이"라는 제목의 개막 프로그램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 음악가, 무용수, 배우, 공중 곡예사 등 전문 예술가 및 학생과 시민 참여자들까지 총 47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이 공연은 하나의 공연 이라기 보다는 개막식에 가까웠다. 수백 명의 시민 무용수와 배우, 드러머들이 참여하고, 창작중심 단체인 축제에서 내가 몇 번이나 보게 된 공중공연단체의 공중공연 시퀀스와, 스페

인 카탈로니아 극단인 라 푸라 델 바우스의 스타일 넘치는 장면인 〈휴먼 넷(Human Net)〉까지 시민 참여자들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인 이 공연은, 시청 앞 서울 광장에 거대한 에너지와 활기를 뿜어내었다.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엄청나지만, 사회적 분열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좇으며 살아남은 공동체의 이미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시민예술가들의 참여가 그 날 저녁 내내, 아니 실로 축제가 끝날 때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이어지는 방식 또한 흥미롭다. 그 날 밤, 폴란드 극단 KTO의 〈시간의 향기(Zapach Czasu)〉 공연에는 극단의 주력 배우들과 함께 시민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다음 날엔 시민 참여라는 주제를 좀더 본격적으로 다룬 세미나에서 거리 예술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볼 기회를 가졌다.

이는 내게도 익숙한 분야인데, 관객 참여는 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고, 평소 다른 종류의 예술 활동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축제를 관람하게끔 장려하는 관객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은 내 일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객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이 프로그램에 깊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SSAF와 나의 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 한국의 발표자들과 함께한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의 축제에서 작품의 창작과 발표에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 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작품에의 참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한국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이 세미나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많은 발표자들이 이번 축제의 몇몇 공연을 시민 예술가와 관객 참여를 잘 활용한 좋은 예로 들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중에는 첫날 밤에 공연되었던 〈휴먼 넷(Human Net)〉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 정도 스케일로 참여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현대적 공연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나의 최우선 과제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들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공연을, 특히 가능한 한 많은 한국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는 것이었다. 나는 거의 모든 한국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람 동선을 짰다. 하지만 불행히도 태풍으로 금요일에 예정되었던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었다. 영국에서도 악천후에 대처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의 입장에 많이 공감했다. 특히, 수는 적지만 결연한 관람 의지를 가졌던 관객들 - 방수복으로 무장한 나와 동료들을 포함하여 - 을 위해 쏟아지는 비 속에서 〈빨



〈시간의 향기〉 극단KTO

리빨리 서울(Quickly QuicklySeoul)의 매력적이고도 잊을 수 없는 엑기스를 공연했던 프로젝트 외의 용감한 무용수들이 기억에 남는다. 고맙게도 토요일에는 날씨가 좋아져서 뻑뻑한 프로그램이 재개되었고 우리도 바쁜 일정을 다시 재개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나는 26개의 공연을 관람했는데 그 중 19개가 한국 예술가들의 공연이었다. 이번이 네 번째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극단들도 있었다. 하나의 공연을 볼 때, 그 작가나 극단의 전체 작품의 맥락에서 영향력과 주제, 스타일, 주된 관심사 등을 비교하여 이들의 발전과 진화를 추적하는 것은 항상 흥미진진하다.

나는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속 수준 높은 무용 공연에 깜짝 놀랐다. 맑은 날씨 속에서 본 〈빨리빨리 서울(Quickly Quickly Seoul)〉 공연은 훨씬 좋았는데, 도시 사무 노동자의 착장을 한 공연자들이, 상업 지구라는 배경의 효과를 최대로 사용하며 여러 위치에서 관객들을 끌어 모으는 능숙함을 잘 감상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유럽의 극단들과의 협업을 포함한 프로젝트 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작품의 이전 모습들을 본 적이 있는 나는, SSAF가 이 흥미진진한 단체의 프로필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현대 서울인들의 템포가 빠른 삶에서 영감을 얻은, 이 몸

시도 세련된 이동형 무용은 유럽 및 다른 곳에서도 널리 공연될 만 하다.

내가 본 무용 공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모던테이블이 자신의 유명한 〈다크니스 폼바(Darkness Poomba)〉의 야외 버전을 공연한 것이었다. 나는 2016년 런던에서 이 작품의 실내 버전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일요일 저녁, 축제를 위해 교통을 통제 한 혼잡한 거린인 세종대로에서의 공연은 실로 폭발적이었다. 김재덕 예술감독은 안무가이자 무용가, 작곡가, 가수이기도 한 다재다능한 예술가인데, 한국 특유의 라이브 음악과 결합하여 흥을 자아내는 이 최고 수준의 현대 무용 공연은 당연하게도 전 세계 투어 중이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관람했던 모던테이블의 모든 공연을 사랑했고, 2017년에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맨 오브 스틸(Men of Steel)〉 공연을 자랑스럽게 영국에 초청한 바 있다. SSAF가 서울 한 복판에서 관객들에게 무료로 이런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작품은 보통 어떤 장소에서 공연되면 고가의 티켓을 예매해야 볼 수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연은 현대 무용에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군중들이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객들도 이런 공연에 목말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크니스 폼바〉 모던테이블



〈저항〉 리브레호벤

다른 익숙한 얼굴의 무용수들도 있었다. 리브레호벤의 작품은 2015년에 처음 접했을 때부터 나를 즐겁게 했는데, 특히 3인 조 공연인 〈연결링크(Connection Link)〉가 인상적이었다. 그 이후로 이 젊고 재능 있는 공연단의 발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들의 새 작품 〈저항(Resistance)〉은 반란과 타협과 사회적 제약을 주제로 하고 있다. 토요일의 공연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들의 공연과 동시에 연출된, 프로그램에는 없던 또 다른 장면이 차지한다. 최근에 비리 혐의로 25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우파 시위대들의 잔뜩 고조된 집회가 큰 소리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60대 이상 이었고, 많은 수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연결을 반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촛불 혁명 이후로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큰 소리를 내며 존재를 과시해왔다. 확성기, 북, 플래카드, 구호들을 동원하여 광화문 광장 주변을 행진하는 이 구 세대의 퍼레이드는, 이날, 리브레호벤의 저항과 희망의 젊은 외침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국 예술가들과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종류의 방해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공연을 진행했다. 외부인에게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도시 중 한 곳에서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고, 축제 기획자들이 이 정치적으로 상징적

인 장소에서 작품을 기획할 때 어떤 일들을 처리해가며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프로그램에는 다른 우수한 한국의 무용 공연이 많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내가 공들여 준비한 일정을 태풍이 망치는 바람에 그 공연들을 모두 보지는 못했다. 유지영의 정교하고 정확한 독무 〈인체圖(Canon of Proportions)〉도 정말 좋았고, 내가 놓쳤던 작품들도 꼭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 그 중에서도 곧 스탠스컴퍼니의 새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연은 전에도 즐겁게 관람한 적이 있었다. 또한 갬블러크루가 현대 무용 안무가와 협업한 작품도 기대가 크다.

무용 공연 외에도 두드러지게 독창적인 볼 만한 작품들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연 중 하나는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물질 2 물질하다가 (MULJIL2)〉였다. 네 명의 공연자가 크고 투명한 수조 안에 잠겨있고, 다른 공연자들이 수조 밖에서 복잡한 의례를 벌이며 등장인물들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부각시킨다. 이 작품은 실로 비범한 참여의 순간을 만들어내며 막을 내리는데, 관객들 중 네 명의 지원자를 수조 앞으로 불러내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잠긴 공연자들과 합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본 어떤 공연보다도 훨씬 더 관객의 참여에 대한 기대를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앞으로 나온 사람 중 최소한 한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 갈매

명이 될 하라고 하는지 알아듣고 뒤로 물러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들여서 예술가들을 쫓아 수조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는 내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인 지원자들이 아니고 예술가들의 친구나 동료쯤 되는 사람들일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축제 정신에 그렇게까지 완전히 투철하고자 하는 한국 관객의 적극성은 실로 대단하며 감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나는 영국의 관객들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는 곧 알 수 있을 텐데, 이 공연은 2019년에 영국으로 초청되기 때문이다.

축제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흥미롭게도 SSAF는 이러한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 나는 공식초청작으로 참여한 서커스 창작집단 봉안줄의 전도유망한 새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같은 작품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지난 일년 간 이들의 작품 〈외봉인생(The Road To Heaven)〉은, 한국 전통 국악이 라이브로 곁들여지는 완성된 차이니즈플 기에 공연으로, 눈부신 서커스 작품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축제 기획자들에게 러브 콜을 받고 있다.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던 또 다른 극단은 극단 몸골인데, 나는

이들의 감동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작품들을 여러 해 동안 지켜보고 있다. 몸골의 〈멀리 있는 무덤(The Grave Far Away)〉은 2016년의 축제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공연 중 하나였고, 이들의 새 작품 〈충동(Impulse)〉도 2015년에 보았던 이전 모습에서 어떻게 진화했을지 기대되는 공연이었다. 〈충동〉은 한 개의 사다리를 반구형 발판에 고정시켜 360도 돌아가는 축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흔들리도록 영리하게 고안된 구조물을 사용한다. 두 명의 공연자가 이 구조물을 만들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구조물 위에서 돌고, 흔들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도약과 추락의 순간들을 창출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도록 만든다. 이 탄탄한 몸의 공연자들은 이 장난스럽고 잘 실행된 공연 속에서 아름다움과 유머와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이전 작품 보다 소규모로 제작된 이 작품을 보며, 축제가 수년 간 하나의 공연이 진화하는 것을 지원해줌으로써 프로젝트의 예술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축제에는 다른 훌륭한 한국 공연들이 많이 있고, 많은 공연에서 관객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갈매의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C'est Pas La, C'est Par La)〉에서는 실로 만들어진 복잡한 구조물이 조명을 받아 아름다운 설치물로 탄생한다. 보이지 않는 시위대의 소음이 공기 중에 진동하여 불안

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관객들은 이 미로 속에 초대되어 실들을 풀어내며 함께 이 구조물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광란의 (실 풀기) 활동이 멈춘 후, 설치물이 커다란 실 꾸러미로 변해 불에 소각되면 광화문 광장은 다시 어둠 속에 텅 빈 채 남아있다.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던 바로 이 장소에서 특히나 더 묘한 감동을 주는 이 공연 역시,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공연 불가능한 작품이다.

지역의 중견 및 신진 작가들과 함께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을 소개함으로써, SSAF는 한국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거리예술 작품 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얻게 되는 예술적 발전의 기회가 있는가 하면, 공식 초청과 자유참가 프로그램 양쪽에는 신진 예술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나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벨기에의 극단 쉬르므즈르의 <피아쥬(Filage)>나 영국의 노핏 스테이트 & 모션하우스의 <블록(Block)>과 나란히 공연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게다가 16개의 해외 극단들을 포함하여 무려 40개 이상의 공연을 자랑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창조적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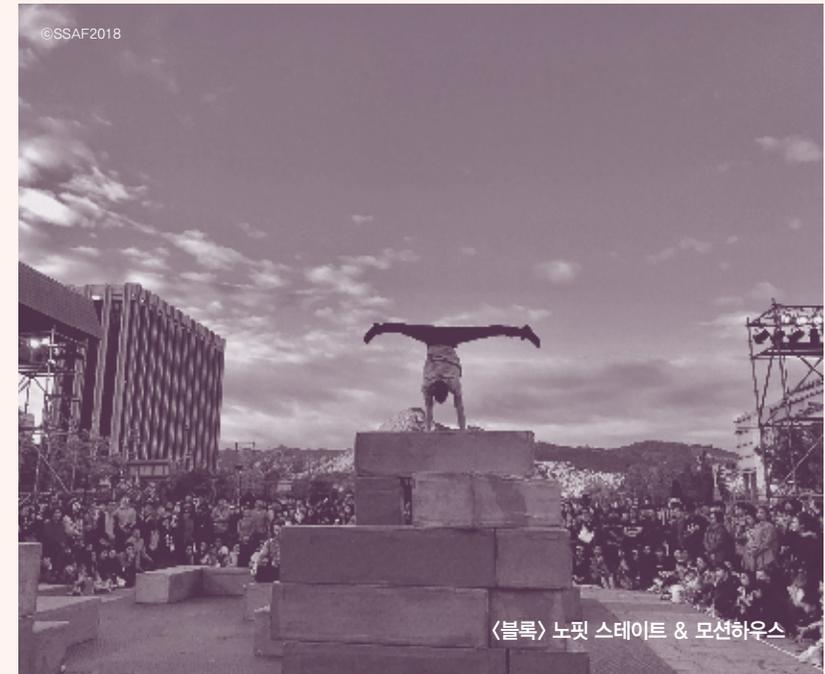
이렇듯 창의적으로 구성된 축제는 한국의 거리예술계가 국제 무대에 빠르게 등장하는데 기여한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이다. 몇 번 방문해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내가 본 전 세계의 창작센터 건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곳에서는 해외 예술가 초청 레지던시 뿐만 아니라, 거리예술과 서커스 활동가들에게 개발 공간과 워크숍, 스튜디오 및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다. 이 훌륭한 자원에 더하여, 한국거리예술협회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결집하고 한국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토대가, 많은 의미 있는 축제들과 함께, 한국 거리 예술 분야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확실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끝으로, 축제 마지막 날 저녁에 상연된 이번 축제의 대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Vous avez un nouveau message))는 지

역의 학생과 예술가, 대중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대규모의 음향 및 시각 예술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역민들이 자신의 걱정과 희망, 꿈을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서울도서관 벽에 이들의 말을 크게 써놓고 서울 광장에 이들의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가시성도 부여했다. 지역민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 때로는 예측가능하고 때로는 심오한, 젊은이들의 희망과 영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중년의 여인이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충격적이었는데, 2014년에 침몰한 세월호는 대부분 어린 학생이었던 탑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 중앙에 아직도 설치되어 있으며, 참사가 있던 당시 정부의 느장 대응이 지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에 기여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이전의 SSAF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공연들도 보았지만, 막상 그 작품들을 만들었던 예술가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시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이제는 모두가 아는, 이전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던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018년 축제에서 이 일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그 모습이 서울도서관에 커다랗게 투사되는 것을 보니, 예술가들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 걸음 더 크게 진전된 듯 하여 감회가 새로웠다.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설치작품이었고, 역시 시민을 무대 중앙에 위치시킨 공연이었다.

관객에 대한 헌신은 축제 곳곳에 스며있었고, 축제는 관객이 된 시민들과 예술가,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익하였다. 지구 반대쪽, 특히 총선에서 간발의 차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론이 깊이 분열되어 있는 영국에서 온 방문객인 나에게,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는 강한 울림을 갖는다. 나를 홀리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서울의 광경과 소리와 냄새에 빠져있을 때는 내가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만,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나는 고향에 온 기분이었으며 곧 다시 오게 되기를 희망한다.

선견지명 있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감독 김종석과 재능 있는 프로듀서 이란희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다.



<블록> 노핏 스테이트 & 모션하우스



<휴먼 넷> 라 푸라 델 바우스

03

LOOKING BACK AT SEOUL



©SSAF2018

〈빛의 기억〉 창작중심 단디

Stéphane Segreto-Aguilar

Coordinator of Circostrada Network (European Network for Circus Arts and Street Arts) and Head of Development at ARTCENA (French National Center for Circus Arts, Street Arts and Theater).

Together with a delegation of several Circostrada Network's members, he attended both SSAF and PAMS last October 2018, as part of a research trip he conducted to connect with the Korean circus arts and street arts scenes.

I left Korea exactly one month ago. It was my second visit to Seoul and I felt strangely at home, as if there was actually very little physical and mental distance separating me from Paris. I was often under the impression I knew my way around, while walking up and down streets and lanes. I quickly immersed myself into the festival, probably due to all the familiar sights, sounds and flavors that were gently rising from beneath the surface of my memory. For four days – fueled by delicious Jeju green tea latte and burning hotteoks – I carefully listened to its beat and measured its pulse, running from one performance to the next.

Whenever I travel to a new festival – especially abroad – I try to leave my assumptions and expectations at my doorstep. It is a game of hide and seek I play with my mind at the beginning of each day, to be receptive and to connect with the performances as much as possible. Neither a curator nor an artistic director, I can almost pretend to be a regular festival goer, selecting the shows I want to see and weaving in and out of the crowd. And when today I stop for just a second

and look back at the previous edition of SSAF, I feel comfortable enough in sharing at least three highlights: its programme, its locations, and its audience.

The program is indeed rich and exciting, comprising of very diverse artistic proposals, exploring all kind of aesthetic trends and formats. From contemporary circus arts to visual arts performances, from sound installations to firework parades, from one-to-one participatory shows to large-scale theatrical pieces. Under the common curatorial axis of "Unity in Difference" – which resonates particularly well also in Western countries – emerging artists perform next to well-established ones, international companies get to know national ones, professionals of the field mingle with regular festival goers.

Each artistic proposal, both in the official and the off programmes, is ideally suited for the venue where it is presented: under a bridge, next to a small stream, in the middle of a big square in front of the city hall, in between the crowded

streets of the financial district, in a bus running around the city, or right in front of one of the most beautiful royal palaces in Seoul. All the venues are close to one another (except one) and the flow between them is well adjusted and thought out. Concentrated in one single area,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to make a choice when going to see a performance, or to just rest a bit and take a break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festival.

While the performances bring marvelous, provocative, playful, ironic, and absurd elements to the streets, the audience engage with them in a mix of subtle and complex emotions. Audience members navigate from one show to the other, always eager to share and display their reactions in the most honest way possible. The theme of this edition spans across the crowd as well: all ages seems to be represented, with a balanced participation of both women and men, and all of them seems to be coming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walks of life. If an ideal audience is large and diverse, a large, diverse and engaged audience is even better!

What else can I say? What kind of advice am I allowed to share? What can the foreign eye possibly see that a local one would not? And what words can be used to be true to oneself, yet generous and constructive at the same time? I've decided not to pinpoint names nonetheless, neither to praise some shows over some others, but just to share some tips, ideas and suggestions. There is probably nothing new in what I'm about to say, but since pedagogy is the art of repetition, I don't see any harm in doing so. This is just a personal wish list, dear festival performer, take it for what it is, no more, no less!

Uniqueness. When going to see a show, this is what I'm mostly seeking out. What do I mean exactly by uniqueness? I'm interested in discovering whatever story you're willing to share, as long as it comes from an individual (or collective) urgency to address certain issues and topics. I'm looking forward to understanding and to experiencing a performance, while learning a new language made of words, movements, objects, lights and sounds. Your words, movements, objects, lights and sounds. Get



〈길 Passage〉 예술불꽃 화랑

inspired by others, copy if need be, but always make it your own and relevant to what you're saying!

Equilibrium. A performance is like making a cake: not only you need all the right ingredients but, if you want to serve a tasty dessert to your friends, you also have to put them in a specific order! Therefore, carefully planning and adjusting each dramaturgical element is crucial when creating and presenting a show, and sometimes less is more. The point of using different ingredients is just to make sense and to create meaning, to allow a view into your world. Even though I don't mind being "lost in translation" from time to time, I still need to be able to follow the invisible thread you have been weaving in front of me. Please, don't leave me alone by myself!

Fashionisms. The language you're going to choose and the vocabulary you're going to use do contribute to making your artistic ethos unique. Why are there video elements in your performance? The answer I'd like to hear would be: because they are constitutive of my performance and without them everything

would fall apart. Why are you asking the audience to participate in your performance? And the answer could be the same. There is no real need to fall for trendy fashion effects and you don't actually need to please any artistic director, curator, or foreign professional. Wowing your audience and waiting for their approval are not objectives per se, are they?

Dramaturgy. In the end, it all boils down to two things: artistic ethos and dramaturgy.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Why do I need to hear this? How are you actually doing it? How is this specific to where I am right now? These things are really nothing new, as I was saying a few lines earlier, so there shouldn't be any surprise, dear festival performer. One last tiny thing. Selling and buying is great and it's what makes this economy go around. However, some of us are also interested in just getting to know you and talking with you, and eventually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gether. Keep it in mind and stay true to yourself, that's why we love you!



〈크로키키브라더스〉 크로키키브라더스

03

서울을 돌아보며

번역 _ 이문희



〈빛의 기억〉 창작중심 단디

스테판 세그레토-아길라르

시르코스트라다 네트워크(유럽 서커스 및 거리예술 연합회)의 코디네이터이자, 아르세나(프랑스 국립 서커스, 거리예술, 거리극 센터)의 개발팀장이다. 시르코스트라다 네트워크의 멤버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그는 한국 서커스 및 거리예술계와의 교류를 위해 진행된 조사 여행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 SSAF와 PAMS에 참석했다.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다. 두 번째 서울 방문이었고, 사실은 파리에서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거의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거리와 골목들을 걸어다니며, 나는 종종 길을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아마도 내 기억의 표면 너머에서 부드럽게 일깨워진, 그 모든 광경과, 소리와, 맛과 향 덕분에, 나는 순식간에 축제에 빠져들었다. 나흘간 - 맛있는 제주 그린티 라떼와 뜨거운 호떡으로 에너지를 충전해가며 - 나는 이 공연에서 저 공연으로 뛰어다니며 주의 깊게 축제의 박동을 듣고 맥박을 잴다.

새로운 축제로 여행을 떠날 때 마다 -특히 해외로 - 나는 나의 가정과 기대를 현관에 두고 가려고 노력한다. 이는 내가 매일 매일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벌이는 숨바꼭질 게임인데, 스스로 수용적이 되기 위해, 가능한 한 공연과 많이 연결되기 위해서이다. 나는 큐레이터도, 예술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평범한 축제 참가자로 위장하고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골라가며 인파를 헤치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전의 SSAF를 돌아볼 때, 나는 최소한 가장 좋았던 점 세 가지를 마음 편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 세 가지는 프로그램과 장소와 관객이다.

프로그램은 실로 풍부하고 흥미진진하다. 매우 다양한 예술적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종류의 미학적 조류와 형식을 탐색한다. 현대 서커스 예술에서 시각 예술 공연까지, 음향 설치물에서 불꽃놀이 퍼레이드까지, 일대일 참여 공연에서 대규모 연극 작품까지. 축제의 전체 주제인 “따로, 또 같이” - 서구 국가들에서도 특히 더 공감되는 주제이다 - 라는 모토 하에, 신진 작가들이 중견 작가들과 나란히 공연하고, 국제적 극단이 한국의 극단들과 친해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범한 축제 참가자들과 뒤섞인다.

공식 초청작과 자유 참가자들 속 모든 예술적 제안들이, 그것이 공연된 장소에 이상적으로 딱 들어맞는다: 다리 밑에서, 작은 시내 옆에서, 큰 광장 중앙에서, 시청 앞에서, 금융지구의 복잡한 거리들 사이에서, 도시를 돌아다니는 버스 안에서, 혹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공경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장소들은 (한 곳만 빼고)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들 사이의 흐름도 잘 조정되고 계획되었다. 한 지역에 집중되어 돌아다니기 쉽고,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혹은 축제의 번잡함을 피해 잠시 휴식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도 매우 쉽다.

공연들이 경이롭고, 도발적이고, 장난스럽고, 아이러니하고, 부조리한 요소들을 거리에 쏟아내는 동안, 관객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이들과 연결된다. 관객들은 이 공연자 공연 찾아 다니며, 항상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직한 방법

로 자신의 반응을 열렬히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대중들에게도 물론 적용된다. 모든 나이대가 표현된 듯 보이며, 남성과 여성의 참여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고, 모두 서로 다른 배경과 계층에 속한 듯 보인다. 이상적인 관객이 다양하고 많은 관객이라면, 다양하고 많고 열심인 관객은 훨씬 더 좋다!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종류의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지역민들은 보지 못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말을 사용해야, 진실 되면서도 관대하고 동시에 건설적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름을 밝혀 어떤 공연을 다른 것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간의 팁과 아이디어, 조언을 좀 할 수는 있다. 내가 하려는 말 중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 어차피 교육은 반복의 예술이라고 하니 내가 또 반복한다고 해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그냥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니, 축제 공연자들이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독창성. 공연을 보러갈 때 내가 가장 찾고자 하는 것이다. 독창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나는 공연자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한 한 개인(혹은 집단)의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에 관심이 많다. 나는 말로, 몸짓으로, 소품으로, 빛과 음

향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배우며 공연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을 항상 고대한다. 공연자 자신의 말과 몸짓과 소품과 빛과 음향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을 얻고, 필요하다면 따라하되, 그것은 항상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들어맞아야 한다.

조화. 공연은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다. 딱 맞는 재료들이 모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대접하려면, 재료들을 순서에 맞게 놓아야 한다! 따라서, 공연을 창작하고 상연할 때 각각의 극작 요소를 세심하게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모자란 게 넘치는 것 보다 낫다.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이 되도록 의미를 창출하고,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가끔씩 “해석하다가 의미를 놓치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내 앞에 자아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닥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제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라!

유행. 당신이 선택할 언어와 사용할 어휘들은 당신의 예술 정신에 독창성을 부여하는데 일조한다. 왜 당신의 공연에 영상 요소가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답은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내 공연에 본질적인 요소이고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왜 관객들에게 공연에 참여하라고 부탁하는가? 같은 대답이어야 한다. 최신 유행에 흘러야 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 당신은 그 어떤 예술 감독이나 큐레이터, 혹은 외국 전문가들도 즐겁

게 해줄 필요가 없다. 관객을 열광시키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극작법. 결국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예술정신과 극작법. 당신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 곳에서 그것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이것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니, 축제 공연자들이여, 놀랄 일이 아니다.

마지막 사족. 사고파는 일은 멋진 일이며 이 시대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냥 당신을 알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 명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이다.



〈길 Passage〉 예술불꽃 화랑



〈크로키키브러더스〉 크로키키브러더스



02

또 다른 시선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예술가의 시선

01

VOUS AVEZ UN NOUVEAU MESSAGE KXKM EXPERIENCE IN SEOUL



©SSAF2018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1.

Pierre Duforeau

Artistic Director of KXKM

KompleX Kapharnaüm produces sites specific creations which take their inspiration from their context, to then become part of that context. Based on an encounter with a place, its history, its habits, its inhabitants, we create a narrative to be shared, nourished and enhanced by materials found on site, addressing the socio-political issues of the world in which we live.

Our goal is to share an off centre, prospective and sensitive vision of a common space, its history and its future, with the public.

And so we seek to position artistic work within society as a way in which to question, a way of creating exchange around, the common.

<Vous avez un nouveau message>(You have a new message) was the result of an invitation by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Jongseok Kim. He invited us to participate in the 2018 edition of the festival which is focused on the question: "How can art communicate Social issues?", questioning on a more global level, the interactions which emerge between artistic projects, citizens and society.

Jongseok Kim had the opportunity to discover our quite singular writing during a number of visits to Europe, and saw the many, immersive relationships that we have woven with the public and the inhabitants of different cities.

Like with each one of our "dedicated" creations (a contextual creation dedicated to a particular city and a particular event), the relationships established with the programmer/ producer go far beyond the simple promotion of an artwork taken from a catalogue. They are true co-productions in every sense of the term: both financially and more importantly, artistically. They are a collaborative response to an "event-based encounter", sharing a point of departure, an objective or goal and a creative process.

The starting point proposed by Jongseok Kim and his team was the theme of "peace" along with all of the resonances that this notion might possess.

The objective was to set up a digital and spectacular installation in a symbolic space within the city, a place for the collective, for gatherings, commemorations and protests: Seoul Plaza.

This project was done in collaboration with local artists, students and other participants.

And so the point of entry for our team of artists was a workshop with fifty or so students of varying ages where they were brought face to face with this theme and with the artistic language of Komplex Kapharnaüm, guided by a number of Teaching-

Artists led by Alex Kim.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certain members of the team had visited the Land of the Quiet Morning. They had the first contact with a distant, rich, plural culture, a culture in which the image and new technologies are omnipresent. The first shock for us was when we found ourselves working with video tools in a public space, as we discovered the impact of the numerous screens present all over the facades of buildings, to the point of creating a feeling at night of a "digital moon" illuminating the city, and in particular Seoul Plaza.

A quite similar sensation occurred in the first hours of the workshop during which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moved easily from drawing to using tablets, to smartphones, to editing, projection, sound, etc... digital tools as a true extension of gesture and thought.

Yet beyond technical considerations, the richest part of the workshop came with our discovery of the sensitivity of this Korean youth, witnessing their vision of peace, and on a more global level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in which we all live?).

And so we noted that a large part of the work produced by the students addressed Peace by way of everything which might inhibit or oppose its emergence, everything which might limit appeasement.

This posture was also nourished by discussions with Jongseok Kim, who also wished to implicitly evoke the notion of Unity in Differences.

Thus we pursued our thinking and writing around a number of questions: How to avoid our differences leading to confrontation? How might we establish a unity through recognition of the diversity of origins, of points of view and of social positions?

So, to nourish and enhance these questions, we turned to the Koreans, so that their stories might serve as a basis for our artistic proposition.

A number of meetings took place with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with their experiences illustrating and giving insight to important societal issues.

To echo the singular and unique words of the witnesses, we listened to the voice of the collective, which is, more often than not, expressed over social networks.

We avoided using FaceBook, Instagram or Kakaotalk, by creating a line of communication on paper, on site, in Seoul Plaza.

For 5 days, on the festival site, the all terrain artists of Komplex Kapharnaüm, accompanied by their Korean counterparts invited passers-by to add to this strand by adding messages and images, contributing to the animation of discussions around the project's theme.

These drawn images and handwritten messages were used each night during the festival to produce a monumental mapping on the library's facade.

A first form of restitution of the discussion that had been initiated, and an invitation to continue, via this mechanism for the circulation of speech, was available to all in public space.

Thus, <Vous avez un nouveau message>, more than being an event and spectacle became an object of creation shared in a public space which questioned the powerful issues of our society: how to remain united while continuing to recognize our diversity.

The spectacular artwork became a space for speech, a public rendezvous, that of the forum.

But our responsibility forced us to go even further. Without betraying the contributions, the words

that have been collected, the emotions which have emerged (despite a form of cultural restraint), we sought to propose a narrative, delivered in a sensitive and spectacular form, to all of the spectators who were present.

It was a question of scripting these materials, of providing them with a visual form, a sound form, of placing them in space on a site, of maintaining a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based on surprise and emotion.

Every available tool was used: monumental mapping, light show, mobile projectionists, live visual creation and original sound composition.

And the work done in collaboration with local actors was pursued: over thirty participants(students), participated in our performance through the manipulation of white flags which were used as surfaces for ephemeral and mobile projections at the heart of the public, in the midst of the public.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Jongseok Kim, to executive producer Rhanhee Lee, to the artists who accompanied us, Alex Jaehyun Kim, HyunJi Jung, Juhyung Lee,... and to all of the members of the production and technical teams.

Our experience highlight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distributors and producers which allows one to maintain a certain porosity between artistic creation and life in society, to reposition artistic creation as a voice which participates in public discussion.

These are the issues that we share in our cultural experiences, with reciprocity, and this engages and involves the arts in public space as an innovative sector, both on an artistic and social level.

2.

Vincent Muteau

Videographer of KXKM

A look back at interviews with observers in Seoul. We approached the theme of peace through notions of unity and diversity by focusing our efforts on the place where we had been invited to play: Seoul Plaza, a historic area for political and athletic demonstrations, the place which embodies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minds of all Koreans. We took advantage of the symbolic power of this place to deliver strong words around the subjects which are currently being debated in Korean society, allowing small voices to speak about greater problems, allowing individuals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in the face of a group... creating a democratic Agora as a metaphor for peace.

The search for pertinent subjects and participants to express them took place in collaboration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and dealt with themes developed by students during the workshop: chaos against harmony, the quest for interior peace... certain subjects emerged very quickly, the nascent Women's movements, pressure in a work setting, the destiny of migrants, the place of youth...

The remarkable work of enquiry of our Korean colleagues, Hyunji Jung and Alex Kim, allowed us to refine these themes and to meet around a dozen observers:

- **Ko Eun Ji, a militant(an activist) for the rights of refugees and Hannan Al Masri, a Jordanian refugee waiting for his situation to be regularized.**
- **Young Mi, a North Korean escapee and Lee Jong Chan, a social entrepreneur who works on helping North Koreans to integrate**
- **Kim Dong Hee, Director of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and Park Young Hee, an actress who is the face of the #metoo movement.

- **Kim Young Sun, Labor Sociologist, Cha Kwang Ho, a worker on strike and Kim Su Eok, a militant(an activist) for the rights of the unemployed.**

- **Park Myung Hee, a relative of one of the young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Park Joo Won, a young student.**

While filming we immediately noticed that our intuition with regard to Seoul Plaza was correct. In effect, each one of the observers spoke of his or her pride and/or their fear of imagining their words delivered on a large format in this square that is so symbolic in their eyes. To this no doubt could be added the difficulty of asserting one's views, of exposing oneself as an individual faced with the group, with society.

My memories of the experience are quite strong ones indeed as I learned a lot about this Korean society of which I previously knew nothing, or at least very little.

Also,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learned to coordinate a Franco-Korean video editing team and to log the interviews in a language whose alphabet I don't even know! So this work could only be done based on a huge level of mutual trust and it allowed us to develop an exceptional level of complicity.

Thanks to the finesse and complementarity of the views of Hyunji and Alex, we managed to produce a sensitive vision of these societal subjects and, if the reaction of the public is to be believed, to touch a number of people.

3.

Alex Jaehyun Kim

Lead TA for the Dream Gream workshop 2018 and
Collaboration Artist of KXKM in SSAF 2018

I began this project by creating the art workshop « Cook-in Media Collage » that was inspired by the work of Komplex Kapharnaüm. Throughout the workshop, I highly focused on the experimental process of creation and its expression by using 'media' as various 'medium.' As TA(Teaching Artist) and a collaboration artist, I was intrigued the most by working process of KXKM.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when artists create something as a group.

KXKM collected inspiration source and intuitively put them together imaginatively or physically, then look for a way to find out a flow of natural story that is revealed by it's own. It is an artful play in between intension and intuition. In my personal drawing work, I also work in a similar way. I am always fascinated by an image that is created unconsciously and intuitively. As I look into this kind of image, I often find unexpected image within, or various stories. It is the process of finding cosmos in chaos. My perception of creating art was almost like a decalcomania of KXKM's artistic perception.

Most preciously, KXKM shared and confirmed 'the beauty of relationship' within the project.

As I participated to write a calligraphy message in Korean, "Art of life is in relationship. Without relationship, there is no life."

I was surprised because one of the core values I've found in art was also its relationship and this artistic value has been centered in my life.

Despite all kinds of limitations of the project and somewhat lack in its artistic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I feel privileged to collaborate with

KXKM. With great respect for one another, and by purely enjoying the process of art itself, I felt a strong connection with KXKM and by the end of the performance, I was one of Komplex Kapharnaüm. What a magical friendship in such a short time.

I recall what Pierre said. "Life of art is in relationship. Without relationship, there is no art."

01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KXKM의 서울 체험

번역 _ 이문희



©SSAF2018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1.

피에르 뒤포로

KXKM 예술감독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은 맥락에서 영감을 얻고 다시 맥락의 일부가 되는 장소특정적 작품을 제작한다. 장소와, 장소의 역사, 그 습성, 그리고 거주자들과의 만남에 근거하여, 우리는 현장에서 찾은 재료들로 살피우고 고양시킬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사회 정치적 쟁점들을 다룬다.

우리의 목표는 잠재력 있으면서도 세심한, 공적 공간에 대한 탈중심적 비전을, 그 역사와 그 미래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의 주변에 교환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사회 내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는 SSAF의 예술감독인 김종석의 초청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우리는 2018년의 축제에 초청되었는데, 이번 축제는 “어떻게 예술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더 전지구적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예술 프로젝트와 시민과 사회 사이에 등장하는 상호작용의 문제이다.

김종석은 유럽을 자주 오가면서 우리의 꽤나 특이한 작업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대중과, 그리고 다양한 도시의 거주자들과 만들어온 많은 몰입형 관계들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헌정된' 작품-특정 도시나 특정 행사에 헌정된 맥락특정적 작품-처럼, 우리에게 기획자/프로듀서와의 관계도 단순히 기존의 목록에서 고른 예술 작품을 홍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작품은 그 말이 의미하는 모든 측면에서 공동 제작물이다.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술적으로도 그렇다. 그것들은 "이벤트에 입각한 만남"에 대한 공동 대응이며, 따라서 출발점과 목표와 창작과정을 공유한다.

김종석과 그의 팀에서 제시한 출발점은 "평화"라는 주제로서, 이 주제가 지닐 수 있는 모든 함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목표는 도시 안의 상징적 장소에 규모 있는 디지털 설치물을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이 장소는 집단을 위한 장소, 모임을 위한 장소, 추모와 항의를 위한 장소이며, 바로 서울 광장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예술가와 학생 및 다른 참여자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리 팀의 예술가들이 들어가는 시점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오십여 명과 함께 한 워크숍이었는데, 여기서 참가자들은 알렉스 김이 이끄는 다수의 예술가교사들의 지도로 이 주제 뿐만 아니라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의 예술 언어도 접하게 된다.

우리 팀의 멤버 중에는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처음으로 와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 머나먼 곳의 풍요로운 다중 문화, 이미지와 신기술이 편재하는 문화와 최초로 접촉한 것이다. 최초의 충격은 우리가 비디오 장비로 작업할 공공 장소에 처음으로 가보았을 때였는데, 밤이 되자 주변 건물들의 외벽 전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광고 스크린들이, 마치 '디지털 달'이 되어, 도시를, 특히 서울광장을 비추고 있는 듯 했다. 워크숍을 시작할 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수많은 참가자들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태블릿과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편집하고, 스크린에 투사하고, 음향을 입히는 등, 디지털 기기들이 진정 몸짓과 사고의 연장선인 듯 행

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충격을 넘어서서 가장 압권이었던 순간은 이 한국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발견하고, 평화와, 좀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목격했을 때였다. 또한 우리는 이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많은 부분이, 평화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들, 평화적 해결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태도는 김종석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는데, 김종석은 '따로, 또 같이'라는 개념을 암시적으로 환기시켜주기를 비웠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과 글을 발전시켜나갔다. 우리의 차이가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신과, 견해와, 사회적 위치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했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예술적 명제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었다.

시민 및 거주자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고, 이들의 경험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증인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말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집단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는데, 이는 종종 사회연락망(sns)를 통해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사용을 자제했으며, 서울 광장 현장에 종이로 '채팅방'을 만들어 두었다. 5일간 축제 현장에서는, 어떤 지형에도 적응하는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의 예술가들이 한국의 예술가들과 함께 행인들을 초대하여 이 '채팅방'에 메시지와 이미지를 더하도록 하였고, 이는 프로젝트의 주제에 관한 토론에 활기를 더하였다.

여기에 그려진 이미지들과 손수 적힌 메시지들은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도서관 외벽에 제작된 거대한 매편에 사용되었다. 시민들로부터 수집된 메시지와 이미지로 만들어진 최초의 영상은 집단 대화로의 초대장 같은 것이었는데, 거대 매편이라

2.

뱅상 뒤토

KXKM 비디오작가

서울에서 시민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돌아보며.

우리는 '따로, 또 같이'라는 모토 하에 평화라는 주제에 접근했는데, 특히 우리가 공연할 장소인 서울광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광장은 정치적 시위나 스포츠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킨 역사적인 장소이며, 한국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장소가 지닌 상징적인 힘을 이용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중인 논쟁의 주제에 관한 강력한 말을 전달했다. 작은 목소리들이 거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들이 집단 앞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의 은유로서 민주적인 아고라를 창조한 것이다.

적절한 소재와 이를 표현할 참가자들을 찾는 일은 한국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다룰 주제들은 워크숍 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발전시켰다: 조화와 혼돈, 내면의 평화를 찾아서, 초기 여성운동, 직장 내 스트레스, 이민자들의 운명, 청춘의 자리... 어떤 주제들은 너무나도 빨리 등장했다. 정현지와 알렉스 김이 작업한 질문지는 이 주제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십여 명의 시민 참여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난민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 고은지와 불법체류 상황에서 벗어나길 기다리는 요르단 난민 하난 알 마스리.

-탈북자 영미와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적 기업가 이종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 김동희와 #미 투 운동의 대표 배우 박영희.

-노동사회학자 김영선과 파업중인 노동자 차광호, 그리고 비정규직 인권 운동가 김수역.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인 박명희와 젊은 학생 박주원.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는 서울광장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진작에 눈치챘다. 실제로, 시민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이토록 상징적인 이 광장에서 거대한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 혹은 두려움을 말한

3.

김재현

드림그림워크숍 TA, KXKM 서울공연 협력아티스트

바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집단, 혹은 사회에 대항한 한 개인으로써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더해졌을 것이다.

내가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았더라도 아주 조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기억도 아주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불한 영상 편집 팀을 조직화하는 법과 자모조차 모르는(!) 언어로 된 인터뷰를 기록하는 법도 배웠다. 따라서 이번 작업은 대단한 수준의 상호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우리가 서로 비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탁하도록 만들었다.

현지와 알렉스의 능숙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견해들 덕분에 우리는 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세심한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대중들의 반응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나는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미디어 콜라주로 요리하기"라는 예술워크숍을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워크숍 기간 동안, 나는 실험적인 창작 과정과 '미디어'를 다양한 '매체'로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하였다. 예술가 교사로서, 그리고 협력 아티스트로서, 나는 KXKM의 작업과정에 가장 매료되었다. 예술가가 집단으로 무언가를 창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KXKM은 영감을 주는 자료들을 모으고, 이를 직관적으로 상상 속에, 혹은 실제 공간에 재배치하고, 이야기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 흐름을 찾는 법을 알아낸다. 그것은 긴장과 직관 사이의 예술적 놀이이다.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나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나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매료된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볼 때 마다, 나는 종종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한 이미지, 혹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곤 한다. 혼돈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술 창작에 대한 나의 이해는 KXKM의 예술적 이해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가장 정확하게는, KXKM이 프로젝트 내 내 강조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내가 참여한 한국어 손글씨 작업에 포함된 메시지처럼:

"삶의 예술은 관계이다. 관계 없이는 삶도 없다."
정말 놀라웠다. 내가 예술에서 찾은 핵심적인 가치들 중 하나도 관계였으며, 이 예술적 가치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의 모든 한계와, 예술적 해석 및 표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KXKM과 협력작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한 특권이라고 느낀다.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예술의 과정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며, 나는 KXKM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고, 공연의 끝에서 나는 이미 콤플렉스 카파르나움의 일원이었다. 단숨에 맺어진 마술과도 같은 우정이었다. 피에르의 말을 되새겨본다.

"예술의 생명은 관계이다. 관계 없이는 예술도 없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콤플렉스 카파르나움

02

<고기, 돼지> 바람컴퍼니 축제 참여 공연 후기

한윤미

바람컴퍼니 연출



©SSAF2018

<고기, 돼지> 바람컴퍼니

축제에 참여하며 공연 사이트 정하기

2018년 5월,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고기, 돼지> 공연을하기로 결정됐다. 처음 공연 장소로 계획한 곳은 서울시립미술관. 그러나 비엔날레 때문에 미술관이 축제 사이트에서 빠지면서 새로운 공연 장소를 위한 답사를 계속 하게 되었다. 고기를 먹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하기에 '백주대낮 저잣거리'라는 컨셉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우리는 가능한 한 서울의 중심부에서 이 공연을 하고 싶었다. 서울시청 뒤편부터 서울도서관 옥상, 시민청, 청계천 일대를 훑었고, 무교로와 세종대로, 서울신문사, 광화문 광장 그리고 축제에서 제안 받았던 돈의문 박물관 마을도 돌았다. 연초에는 마장동에서 이 공연을 하는 것이 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팀 내부에서 있었지만, '소비하는 도시: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우선시 되어 다시 뒤로 밀렸다.'

<고기, 돼지> 공연 장소에는 여러 물리적인 조건이 붙는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 2-30명의 관객들이 뭉쳐서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길, 돈사(돼지우리)를 설치 할 수 있는 공터,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공간 그리고 이동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돌고 돌아 마침내 종로 공원과 광통교 루트를 공연 장소로 확정했고 기술 미팅까지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공연예정인 토요일, 종로 공원이 비공식적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축제 측과 공연팀 모두 비상이 걸렸고, 무교로의 다동 공원으로 출발지점을 급히 수정하게 됐다. 물론 전체 루트도 함께 변경되어야 했다. 다사다난했던 공연 장소 정하기는 최종적으로 9월 10일에 확정되었다.

중구 무교로 다동공원-을지로 길-청계천 광통교 상부-청계천 광통교 하부가 최종 공연 이동 경로가 되었다.

거리 공연에서 장소란 무엇일까? 도심의 한 가운데 그리고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공연을 준비하면서 축제 사무국의 담당 피디님과 내내 긴밀하게 연락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연락한 팀이기도 모른다. 그 만 좀 괴롭히려는 웃음 섞인 이야기를 다른 분께 듣기도 했다. 공연 장소에 대한 장소 사용 요청과 그에 따른 협의를 축제 측에서 전담하여 진행해주었다. 우리는 이동형 공연이라 공원과 도로의 사용, 차량 통제, 청계천 사용 등 많은 협의가 필요했는데 이 일들을 모두 축제 사무국에서 맡아 해주었다. 공연 후반에 꽤 큰 사이즈의 비닐 돼지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했다. 비닐 돼지가 가벼워서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제법 멀리 날아가고, 의도치 않게 청계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 테스트를 통해 알게 된 우리는 협의에 참고가 될 낙하 영상과 실제 현장 오브제 사진 등을 첨부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축제 운영팀과의 회의 후 비닐돼지 오브제의 실물을 요청했다. 축제의 모든 거리 공연 참가팀들이 사전에 실제 오브제를 보여주고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외팀은? 이것은 공공 공간의 장소사용신청인가, 허가인가 등의 질문들은 뒤로 하고, 일정 상 이를 후까지 오브제를 갖다 줄 수 없는 어려움과 다소 지나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축제 운영팀의 재협의 후 요청 사항은 없던 일이 되었다.

사전 홍보

연습 기간 중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팟캐스트 촬영을 왔다. 거리예술축제에 다른 공연 팀으로 여러 번 참가했지만 홍보를 위해 촬영 팀이 온 적은 없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다.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 주었고, 촬영 전 피드백을 나누었다. 미리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시민들

에게 사전 정보를 알리는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전 질문지 작성, 촬영, 편집까지 가능한 능력자 길동이분들이 많은 덕분인 것 같다. 공연이 임박해서는 카드뉴스 홍보물도 나왔는데 역시 길동이분들이 만든 것이었다. 시민 자원봉사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길동이들의 활약, 대활약

공연의 주요 오브제인 비닐돼지는 그 부피가 크고 구멍이 나면 손상이 잘 되는 재료의 특성 상 반제작 후 현장에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제작 스텝도 따로 섭외했지만, 길동이분들과도 현장에서 함께 만들 계획을 세웠다. 셋업 때 작은 돼지와 큰 돼지 제작 그리고 우천에 대비한 오브제 비닐 작업도 함께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진행, 우천을 대비한 플랜B를 위해 함께 리허설 해주신 길동이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셋업 시 현장에서의 소리 간섭, 공연 하루 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서커스넥스트의 참여자들이 〈나의 서커스〉 공연을 광통교 아래 소라광장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우리의 준비 텐트는 광통교 위에 있었지만, 서커스 공연에 사용하는 붕의 맨 윗부분이 우리 텐트 바로 옆이라 비닐에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송풍기 소음으로 그 팀 리허설과 공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연 전 날, 생각만큼 돼지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이때까지는 리허설과 공연을 위해 총 100마리 정도의 돼지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거리예술축제를 좌우하는 날씨, 공연 첫째 날

축제 기간에 태풍이 상륙했다. 비구름은 제주도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토요일에는 방향을 틀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지만,

머무는 내내 많은 비가 내렸다. 축제의 둘째 날이자 우리 공연의 첫째 날인 금요일, 거의 대부분의 공연들이 취소되었고 몇몇 공연만이 장소를 변경하여 재개되었다.

우리 공연 장소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출발 지점인 다동공원의 음향 셋업이 아예 되지 않았고 광통교 셋업도 철수됐다. 사운드 체크와 전체 리허설도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사전예약 공연이니 예약한 관객들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다. 게다가 비가 오니 야외에서 돼지를 더 만들 수도 없었다. 이미 텐트는 만들어진 돼지들로 포화 상태였다.

공연의 필요조건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음향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비가 오면 종로의 물을 수문을 열어 청계천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청계천이 전면 통제됐다. 따라서 공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광통교를 선택했던 이유인 낙하 장면을 위해 비닐 돼지를 청계천 광통교 아래로 던질 수 없으며(회수하러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가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공연 팀이 공연하기를 원한다면 협의해 보자는 것이 그 날 오전의 상황이었다.

〈고기, 돼지〉 공연은 일부 관객은 체험하고 또 그 외의 관객들은 그들이 체험하는 것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관객 전체가 끊임없이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공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향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관객에게 ‘말을 잘 들려주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내용 전달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청계천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공연들은 당일 셋업과 철수를 기본으로 계획된 곳이라 장비들을 위한 천막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했다. 현장의 무대감독님은 천막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해 음향 장비들(우리가 사

용하기로 한 음향시스템 2조, 핀 마이크, 이동형 스피커 그리고 핸드마이크)은 모두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가 적게 와도 음향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면 무조건 공연을 못하는 것일까? 공연이 하고자 하는 말은 꼭 준비된 방식으로만 표현되어야 하는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변경이 허용되는 것일까? 그래도 괜찮은가.

우리는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비닐돼지를 돼지우리에 전시만이라도 하는 것은 어때, 낙하하는 장면 대신 평지에서 하기로 했던 방법을 쓰면 어때, 작은 규모의 투어처럼 해보는 건 어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플랜 B들이 나왔고, 이렇게라도 공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도 쌓였다.

예전에 화가가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것을 프로젝터로 전면 스크린에 투사하는 공연에 참여했을 때, 비가 와서 음향과 조명 장비는 천막으로 비를 피하고, 화가와 그 책상과 카메라 및 프로젝터는 큰 우산을 씌워주고, 배우이자 연출님은 약간의 비를 맞으며 연기를 계속하고, 관객들이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경우에는 공연을 계속 진행했었다. 우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였다. 물론 그 비가 폭우로 바뀌어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공연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플랜 B는 비를 피하며 준비한 것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본래 하려던 말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형식의 말하기를 하면, 공연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럼에도 우선, 원래 길에서 사용하기로 한 이동형 스피커와 핸드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한 대를 추가로 사용하여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공연 진행 계획을 세웠다. 낙하 장면을 예전에 준비했던 평지에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장 무대감독님께 공연 재개의 의지를 알린 직후, 축제 공식사이트를 통해 전체 공연이 취소됐다는 글을 보

게 됐다. 재개되는 공연만 업데이트 된다는 공지였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그래도 공연팀이 원한다면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

다시 회의. 결국, 금요일 공연은 취소했다. 연습되지 않은 장면을 관객들과 함께 하는 것, 준비되지 않은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컸다. 게다가 도로에서의 장면 때문에 차량 통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객의 안전과 그것을 통제하는 진행팀의 안전, 이동형 스피커를 끌게 될 음향팀의 안전 등 그런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객들이 이 비를 뚫고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것인가도 의문이었다.

대신 내일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날 1시와 5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낮까지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였다. 우천 상황을 대비한 평지에서 장면을 비오는 와중에 길동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해 보았다. 그리고 연습 도중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자원봉사자이자 마스크트라고 하는 길동이. 공연을 위한 안내 및 진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우리는 현장제작의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계획된 역할도 아닌,

얼굴을 드러내고(마스크와 하얀 우비를 입겠지만) 공연에 출연하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충분히 준비된 방식의 말하기가 필요했다. 공연에서 낙하 장면이 중요했기에 긴 시간을 장소 답사에 썼고 그렇게 선택된 곳이 광통교였다. 결국, 청계천 통제의 해제, 음향장비의 사용이 모두 가능해야 공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토요일, 공연 둘째 날.

공연 시간이 임박해지고 비가 찾아들었지만 청계천의 통제가 해제되지 않았다. 낮 공연시작시간을 1시에서 2시로 지연하고, 낙하 장면을 제외하고 공연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축제 사무국의 제안이 있었다. 사운드 체크와 리허설을 하지 못하여 음향 셋업이 되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 5시 공연 전에 세 셋업 시간이 짧고, 5시 공연이 6시로 밀리면 공연 후반에는 어두워져서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 전날, 플랜B 리허설을 이미 진행해본 후 아니라는 결론이 있었기에 다시 협의한 후, 결국 5시 공연 한 번만 진행하게 되었다. 드디어 비가 멎고 기다리던 음향 셋업이 되었다. 사운드

체크를 하고 가볍게 리허설을 하고, 이동약자 이동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곧 함께 하게 될 관객들을 기대하며 공연을 준비했다. 드디어 청계천 통제도 해제됐다.

이번 축제에서 좋았고 고마웠던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사전에 요청했던 이동약자를 위한 고무판을 지원해주었다는 점이다. 공연 장소를 선정할 때 이동경로에서 턱이나 바퀴가 다니기 불편한 공간들을 미리 체크하고 축제 측에 고무판을 요청하였는데, 사전에 확답을 받지 못했었다. 자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현장무대감독님과 사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현장에서 위치를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고무판의 설치 및 철수까지 축제에서 책임지고 해주었다. 이것이 작은 시작이길 바란다.

공연은 무사히 다섯 시에 시작되었다. 취소된 줄 알고 오지 못한 참여 관객들의 자리를 현장 대기 관객들이 채웠고, 체험하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자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준 관객들이 더 많았다. 관객들이 길 위에서 하나로 묶여 이동하려는 순간, 맞은 편 GS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트럭이 나왔다. 그 트럭 뒤에 타는 줄 알고 놀랐고 또 설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거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과 화법을 더 찾아야겠다. 길에서 계속 이동하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묶이고, 물 맞

고, 돼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했음에도 충실히 관객의 역할을 다 해준 시민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고기, 돼지〉 공연은 2017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거리에 솔양성프로그램 거리예술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창작 지원을 받았다. 2017년 쇼케이스는 창작센터의 제 1취수장 내리막길 벽 앞, 제 1취수장 반입구 그리고 제 1취수장 5층 전채와 그 높이를 활용하여 실외 뿐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 조명을 사용하며 공연되었다. 처음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에서 공연되며 온전히 거리에서 조명 없는 낮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만났다. 무교로 다동공원에서, 을지로 길에서, 청계천 광통교에서, '고기와 돼지 사이'의 이야기로 서울의 중심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참 반가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공연이 올라갔다. 축제 사무국, 국내팀 담당 김피디님, 현장 스태프들, 길동이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축제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동 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사전 안내와 지도, 음성언어 사용여부 표기, 문자 통역, 수어 통역 등이 준비된 축제를 만나고 싶다. 그럼, 거리에서 또 만나길 기대하며. 태풍 없이.



〈고기, 돼지〉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바람컴퍼니

03

<Back of the Bus> Review



©SSAF2018

<버스에서> 자바 댄스 씨어터

Sacha Copland

Artistic director and Choreographer of Java Dance Theatr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8 was the 20th season of <Back of the Bus>. When I was a child I would sit on the bus in New Zealand and imagine dancing, and hanging off the poles. Buses always seemed magical to me, seemingly ordinary but full of potential and the allure of travel. Although I always dreamed of dancing on a bus I never imagined that as an adult I would end up in Seoul, a city of 10 million people performing the 20th season of <Back of the Bus>, dancing alongside Korean dancer Esl Kim, performing a phone conversation in Korean and singing along to a Korean pop song live by Korean singer and song writer Seok O. Java Dance Theatre has performed our tailored bus journey hundreds of times all over New Zealand,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but it was the first time we have staged the show in a city as big as 10 million people, the first time we worked with locals in such an intensive way and the first time we performed it in Asia, in Korea. <Back of the Bus> is a dance theatre show on a moving bus. The dancers play characters and the audience follow us to secret locations where they see each character's hidden

view of the world. The bus route is timed and a host who is gradually revealed as a musician plays music at particular points with a few added dramatic antics if there is extra traffic. In <Back of the Bus> we are close to the audience, very close. We sit beside them, we dance among them and we dance with them. There is an intimacy that breaks down the distance between people and brings us all closer. Something essential happened when we performed <Back of the Bus> at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There was a 'softening of the air', a relinquishing of resistance and a genuine meeting of people with joy and understanding. The show seemed to sink into the city and mould to it. This seemed quite incredible to me, to feel so integrated into a foreign city. By performing with locals Esl Kim and Seok O in <Back of the Bus> we became locals for a moment, we became part of the city and shared the inhabitants' journeys. It was a glimpse into another life. Art is amazing in this way. We can live in someone else's shoes for a moment and understand the world more deeply.

At first we were a little nervous about staging

<Back of the Bus> in Seoul. We had performed an installation <Sense> at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in 2016 but <Back of the Bus> is a lot more logistical, given that it involves traffic, a moving bus and timing. We really had to trust the festival and in particular Yuri Kim, who did more for us than any other festival has before. Usually we drive the bus route ourselves to check the timing and we do a whole lot of other logistical things ourselves but in Seoul we were out of language and out of our depth. We needed someone to organize the logistics for us and to relinquish some control. That was where Yuri came in. Yuri found us the perfect locations, Sejongno Park, Donuimun Open Creative Village and the Holiday Inn Bar (so handy to finish the show at our hotel!). Yuri figured out a bus route that meant we didn't get stuck in traffic or protests even once and best of all Yuri found us guest dancer Esl Kim and guest musician Seok O from Seoul.

Esl Kim and I first met when we were both jet-lagged, sleep deprived and under a little pressure. Esl had just returned home to Seoul from London and I had arrived from New Zealand the day before we started rehearsing. We had a daunting task ahead of us. Esl had to learn one of the soloist roles in <Back of the Bus> including a solo on the moving bus, a duet in the Creative Village, group pieces on the bus, a solo in the bar, developing her own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and putting it all together. Despite our weariness and tighter muscles than usual from our plane trips from opposite ends of the earth, we began. We met in the middle. I made an imaginary bus with chairs in the studio and Esl dived into learning the whole show. At first it seemed like we would never get through it but hour by hour Esl absorbed it all and

suddenly we were ready to go to the bus depot. Bus depots all over the world feel exactly the same. It felt strangely familiar and quite comforting to arrive at Kyungsung bus depot. Everything started to fall into place when Esl and I jumped on the bus for some stationary rehearsals. That was also when we meet Seok O and our wonderful volunteers Chae-eun, Summer, Da-Seul. The first time we all heard Seok O play was wonderful. He played 하늘을 달리다 by 이적 and Another Day, Seok's own song. Watching the faces of everyone on the bus and hearing them join in singing so naturally gave me a real sense of the strong feeling of community in Korean culture. I started to feel the rhythm of Seoul in my body. That night Esl and I went costume shopping in Myeongdong. There is nothing anything like Myeongdong in New Zealand. Myeongdong is light years away from a country of only 5 million people spread out amongst the mountains and the trees. I was glad Esl was there to lead the way and show me the sights, otherwise I think I would have got lost for eternity in the lights. It made me think of how Koreans must feel when they arrive in New Zealand where shops shut early and there are more sheep than people (yes it's true). It's a long way from the bright lights of Seoul. Esl weaved her way in and out of the crowds and hunted down a costume for her bus <Back of the Bus> character. I like to mould a role to each individual dancer and let it evolve and change to suit the performer and the context. Sometimes the most unlikely things help this process. Costume shopping in Myeongdong late at night helped Esl's bus character to emerge. We could suddenly picture the character living out in the world and she started to come to life. Once we had what we needed Esl took me to a little restaurant tucked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where for the first time I tried proper traditional Korean food. I am vegetarian and I hadn't had so much luck finding vegetarian Korean food by myself but with Esl it was easy. We tucked into spicy soup, kimchi, rice and many side dishes. It turned out to be the first of many Korean dinners where I tasted Shabushabu and Bibimbap for the first time. Something about sharing spicy steamy soup opened up our conversation. Family stories about Esl's Grandma's cooking and Grandma's life emerged from the spice and for a moment I felt like I was sitting in her grandma's house. It was an invitation into another world for a moment and I felt very lucky to be invited. It was late and after a day full of dancing at a bus depot, hearing Korean songs for the first time, shopping in Myeongdong and Grandma's stories we jumped on our buses to go home. As I rode the bus in Korea I pictured all our characters living in Seoul. I rode the bus quite a few times and by the end I realized that bus culture is pretty universal. I started to understand how the audiences in Seoul would relate to <Back of the Bus> and I felt happy that dance translates across all cultures. Investigating audiences is my life's research and the less you know about an audience to begin with the more you learn. I was starting to get a deeper insight into Seoul audiences, which was lucky because we had just one more day before I would leave Seoul to join the rest of Java Dance Theatre in China to perform. It was hard to leave but the choreography was now in Esl's safe hands and I would be back with Java dancer Lauren Carr one day before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opened.

After a meal or 2 with Grandma for the holidays Esl rehearsed, tickets went on sale and were snapped up in a flash and.....

Suddenly we were back in Korea performing on the moving bus with Esl and Seok for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There were flowers and flying groceries and locals clapping along and the lovely lady from Donuimun Open Village who came out to watch every show and audiences dancing with Lauren in Sejongno Park and laughter and traffic and singing and rain and dancing journeys through Seoul where both dancers and audience were transformed. The space between us and the audience changed. We became part of the city of Seoul and they became part of the magical reality inside the bus.

I think dance exists so that for a moment the space between one person and another disappears, we feel what the other person feels and we communicate in one of the most ancient ways. The reason I make dance is because I believe that it can reduce the distance between us. This happened at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and it was delightful. It was made possible by Rhanhee Lee who saw the show in 2012 and had faith it would work in Seoul, Yuri Kim who is absolutely amazing at making tricky things seem easy, Esl Kim who threw herself into dancing on a moving bus, Seok O who brought us wonderful musical respite and Jongseok Kim who said yes to a dance show on a moving bus from New Zealand. It was inspiring to be part of a festival where all the art comes out into the city and meets the public in their space. Esl Kim and I have a few ideas brewing for making a show together with lots of local volunteers and live music and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in the magical city of Seoul.....

03

〈버스에서〉 서울공연 제작후기

번역_ 이문희



〈버스에서〉 자바 댄스 씨어터

사샤 코플랜드

자바댄스씨어터 예술감독이자 안무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은 〈버스에서〉의 20번째 시즌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뉴질랜드의 버스에 앉아서 버스 안에서 춤추고 손잡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버스는 항상 내게, 평범해 보이지만, 잠재력과 여행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마술적인 공간이었다. 비록 항상 버스 안에서 춤추는 걸 꿈꾸긴 했지만, 성인이 되어, 인구 천만의 도시인 서울에서, 한국인 무용가 김이슬과 함께, 한국어 전화 통화를 연기하며, 한국인 싱어송라이터 오석이 라이브로 연주하는 K-pop을 따라부르며, 〈버스에서〉의 20번째 시즌을 하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자바 댄스 씨어터는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에서 우리의 맞춤형 버스 여행을 수백 번 공연했지만, 인구 천만의 대도시에서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지역민과 이처럼 강렬한 방식으로 작업한 것도,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공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버스에서〉는 움직임은 버스 안에서 상연되는 무용 공연이다. 댄서들은 각자 등장인물을 연기하고, 관객은 비밀 장소로 우리를 따라와서 각 인물의 숨겨진 세계관을 엿보게 된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서서히 음악가로 정체가 드러나는 진행자가 정해진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혹시 교통 정체가 있으면 짧은 익살극이 몇 개 추가된다. 〈버스에서〉는 관객과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는 공연이다. 우리는 관객 옆에 앉고, 관객 속에서, 관객과 함께 춤춘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우리 모두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친밀함이 생겨난다.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우리가 〈버스에서〉를 공연할 때, 뭔가 본질적인 일이 벌어졌다.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저항감이 사라졌으며, 오로지 기쁨과 이해만 존재하는, 사람들의 진짜 만남이 벌어진 것이다. 마치 공연이 도시 안으로 가라앉아 도시와 한 몸이 되는 것 같았다. 외국의 도시와 이토록 통합되는 듯한 느낌은 내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지역민인 김

이슬, 오석과 〈버스에서〉를 공연하면서, 우리는 한 순간 지역민이 되었고 도시의 일부가 되었으며, 거주자들의 여행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이었다. 예술은 이렇듯 굉장한 일을 한다. 우리는 잠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험할 수 있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처음에 우리는 〈버스에서〉를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에 약간 긴장했다. 2016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설치형 퍼포먼스 〈감각〉을 공연한 바 있지만, 〈버스에서〉는, 교통량과 버스 운행과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여서 훨씬 더 많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제 주최측, 특히 김유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는데, 김유리는 이전의 다른 어떤 축제들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보통 우리는 버스 노선을 직접 운행하면서 타이밍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다른 수많은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리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우리에게는 버스 운행에 따르는 수송 전략들을 짜주면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유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준 사람이었다. 유리는 우리를 위해 세종로 공원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 홀리데이인 호텔(우리가 머무는 호텔에서 공연을 마무리하는 편리함이라니!)이라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주었다. 또한 우리는 한번도 교통 체증이나 시위대에 의해 막히지 않은 노선을 짜주었다. 무엇보다도, 유리는 게스트 댄서인 김이슬과 서울 출신 뮤지션 오석을 섭외해주었다.

김이슬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둘 다 시차와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였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슬은 런던에서 서울로 막 돌아온 참이었고, 나 또한 연습 시작 하루 전에 뉴

질랜드에서 도착한 상태였다. 게다가 우리는 벅찬 임무를 앞에 두고 있었다. 이슬은 <버스에서>에서 독무자들 중 한 명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역할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의 독무와 박물관 마을에서의 듀엣, 그리고 호텔에서의 군무를 포함하는데, 이외에도 자신의 역할을 해석하고 그 모든 것을 춤에 녹여내야 했다. 지구 반대쪽에서 시작한 비행기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고 근육도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시작했다. 우리는 중간에서 만났다. 내가 스튜디오에 있는 의자로 상상의 버스를 만들었고 이슬은 공연 전체를 익히는 일에 몸을 던졌다. 처음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이 모든 것을 흡수했고, 우리는 갑자기 버스 차고지에 갈 준비가 되었다. 전 세계의 버스 차고지는 정확히 같은 느낌을 준다. 경성여객 버스 차고에 도착하자 기묘하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정지 상태에서의 리허설을 위해 이슬과 내가 버스에 뛰어든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석과 훌륭한 자원봉사자 채은, 의연, 다슬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석이 연주하는 것을 처음 들었던 순간은 정말 멋졌다. 그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와 자신의 노래 '어나더 데이'를 불렀다.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을 보고, 이들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들으며, 나는 한국 문화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내 몸 안에서 서울의 리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슬과 나는 의상 쇼핑을 위해 명동에 갔다. 뉴질랜드에는 명동과 비슷한 것도 절대 없다. 명동은 5백만 정도의 사

람들이 산과 나무들 사이에 점점이 퍼져 살고 있는 나라와는 몇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슬이 나를 데리고 다니며 안내 해주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불빛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게들이 일찍 문닫고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사실이다) 뉴질랜드에 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았다. 서울의 밝은 빛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슬은 수많은 인파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버스에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는 의상을 골랐다. 나는 각각의 댄서에게 역할을 맞추고, 역할 자체가 공연자와 상황에 맞게 진화하고 변화하도록 두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예상 밖의 일들이 이 과정을 돕기도 한다. 명동에서 한복의 의상 쇼핑이 이슬의 버스 캐릭터를 꼬집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갑자기 등장 인물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상상되었고, 그녀는 이슬의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을 다 사고 나서 이슬은 북적거리는 거리를 좀 벗어난 곳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거기서 나는 생애 최초로 제대로 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채식 주의자였고, 그때까지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한국 음식을 찾는 일이 어려웠지만, 이슬은 쉽게 찾아주었다. 매운 국과 김치와 밥과 많은 반찬이 우리 앞에 차려졌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사부사부와 비빔밥을 맛본 한국식 정찬이었다. 맵고 뜨거운 국물을 함께 먹다 보니 대화의 문이 열렸다. 매운 요리와 함께 이슬의 할머니의 요리와 삶에 대한 가족 이야기들이 등장했고, 나는 한 순간 그녀의 할머니 댁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잠시 동안의 초대였고, 나는 초대받아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시간이었다. 버스 차고지에서 춤추고, 처음으로 한국 노래를 듣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할머니 이야기도 나는 우리는,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한국에서 버스를 타면서, 나는 우리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그 버스를 많이 탔고, 결국 버스 문화는 꽤나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관객들이 어떻게 <버스에서>에 공감하게 될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무용이 서로 다른 문화를 횡단하여 해석된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다. 관객 탐구는 내 인생의 연구 주제이고, 공연 출발점에서 한 종류의 관객에 대해 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우는 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서울 관객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만 더 있으면 공연을 위해 중국에 있는 자바 댄스 씨어터에 합류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야 했던 나에게 행운이었다.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안무는 이슬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고, 나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개막 하루 전에 자바 댄서인 로렌 카와 함께 돌아올 예정이었다. 명절 동안 할머니와 한 두 끼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슬은 연습에 매진했고, 관람 예약을 받았고,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위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이슬과 석과 함께 공연하고 있었다.

꽃이 있었고, 식료품이 날아다녔고, 지역민들이 함께 박수 쳐 주었고,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아름다운 여성이 모든 공연을 보러 왔고, 세종로 공원에서는 관객들이 로렌과 함께 춤을 추었고, 웃음과 교통체증과 노래와 비와 춤추는 여행이 서울 시내를 통과하며 댄서들과 관객들을 모두 변화시켰다. 우리와 관객 사이의 공간이 변화했다.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가 되었고, 관객들은 버스 안의 미술적 현실의 일부가 되었다. 춤이란 잠시 동안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간을 사라지게 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소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춤을 만드는 이유는 춤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여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는 분명히 그랬고, 그건 즐거운 일이었다. 이 경험은 2012년에 우리 공연을 보고 서울에서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준 이란희와, 어려운 일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데 절대적인 재능을 보여준 김유리, 움직이는 버스 위에서 춤추기 위해 온 몸을 던진 김이슬과 우리에게 멋진 음악적 휴식을 제공해주신 오석, 그리고 뉴질랜드의 움직이는 버스에서의 무용 공연을 허락해주신 김종석에 의해 가능했다. 모든 예술이 도시로 나와 대중의 공간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는 축제의 일부가 되는 경험은 많은 영감을 준다. 김이슬과 나의 마음 속에는, 라이브 음악과 지역의 많은 참여자들을 포함시키는 공연을 함께 만들어 아이디어 몇 개가 무르익는 중이고, 이 미술적인 도시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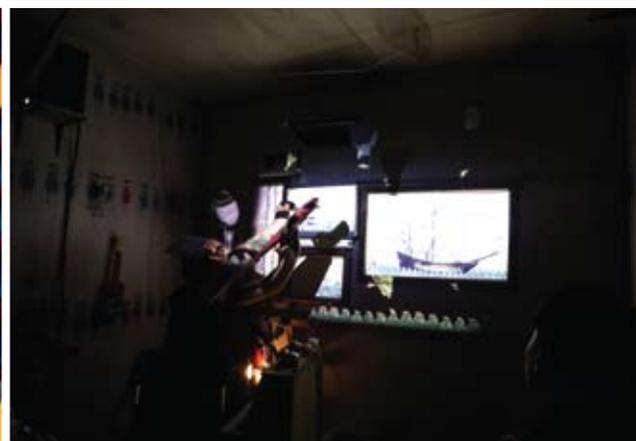
<버스에서> 자바 댄스 씨어터



<버스에서> 자바 댄스 씨어터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거리예술 비평모음집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90 | FAX. 02-6008-7347
발행인 김중휘
기획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추진단
디자인 임병호 **DALE**
인쇄 진영PNP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의 저작권은 해당저자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출판물 내 이미지 및 관련자료를 사용할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2018